

# <파송송 계란탁>

## < 등장인물 >

대구 / 26세

인권 / 9세 - 대구의 아들

박사 / 24세 - 대구의 동료이자 꼬봉

미연 / 26세 - 인권의 엄마

조PD / 34세 - 방송국 휴먼다큐 PD.

아버지 / 58세 - 대구부

주리 / 22세 - 미연의 동료

## #1. 인천 도심의 음반점(타이틀 백 - 낮)

화면 밝아지면 길과 나무가 아름다운 서정적인 흑백사진이 보이고 사진 옆으로 사진 크기만한 < 5 > 라는 숫자가 나타난다.

카메라, 한계단 올라가 멈추면 이번엔 유명가수의 사진과 숫자, < 4 >.

화면 또렷해지면서 투명 플라스틱 CD 케이스와 구석에 써 있는 가수의 이름을 보니 앨범 자켓들인걸 알겠다.

그렇게 < 3 >, < 2 >, < 1 > 의 앨범까지 차례로 훑어 올라가면 진열대 상단에는 < 주간판매순위 > 라고 쓰여 있다.

카메라 켜하면 진열대 앞에 서 있는 대규. 자만심에 가득한 미소를 짓는다.

손님들 사이로 기웃기웃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대규.

잘나가는 앨범들은 어떤 것들인지, 연령별 선호도는 어떻게 되는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헤드폰으로 새로 나온 앨범 들어보기도 하고... 흡사 현장조사 나온 음반사 직원 같다.

그런 대규를 카운터의 주인이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힐끔힐끔 본다.

계산대 앞의 대규를 주인이 너무나 뜻밖이라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

검연쩍은 듯 씨익 웃는 대규.

대규가 사려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건 '최신티로트모음' 테잎!이다.

## #2. 지하공장(낮)

이상하게 생긴 기계에 탁탁탁탁 테잎을 끼우는 손들, 대규와 박사다.

지하공장 이쪽으론 마스터기에서 케이스에 넣을 표지가 인쇄되고 있고 자동포장기에선 테잎이 자동으로 포장된다.

테잎을 다 끼운 후 대규, 옆 조그만 기계에 음반점에서 산 '최신티로트모음' 테잎 넣고 버튼 누르면 50개의 공테잎들이 웅 동시에 돌아가며 고속복사된다.

푹푹찌는 실내, 환풍기와 천장에 달린 선풍기... 열악한 환경의 불법복제공장이다.

### 대규

야, 그럼 이만원 빵. 너무 싸다 너무 싸.

1등부터 5등까지 다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 박사

(공테잎 박스 뜯으며) 그런 거 맞추면

뭐해? 로또나 맞추라니까...

들어오는 사장, 완성된 테잎이 빼곡히 담겨진 박스들 수량을 센다.

**박사**

(달려가) 사장님! (쭈뼛쭈뼛) 오늘은...

**사장**

(선수치는) 진짜 이것도 못해먹겠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냐? 진짜 무슨 수를 써야지...

**대규**

(낄낄) 해커를 고용해서 인터넷을 싹 마비시키는 거야. 그리구 컴퓨터 공장이랑 CD플레이어 공장엔 확 붙을...

**박사**

(또 시작이군 하는 얼굴로 대규 보곤 사장에게)요새 누가 테잎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CD루 돌리자니까.

**사장**

이 기계 얼마에 샀는데!...다른 건 몰라도 그 불법사이트들은 전부 폐쇄시켜야 돼. 이대루 가다간 음반사들 다 문닫는다구...

**박사**

(꿈얼꿈얼) 불법복제사장이 음반사 걱정은...(사장에게)하여튼 지난달것까지 해서 오늘은...(하는데 울리는 사장의 핸드폰)

**사장**

(통화)어...(구석의 조그만 사무실 쪽으로 가며) 말마라....그래서?... 째새가? 아, 씨바 인터넷인가 뭔가 그거나 때려 잡으라 그래....씨바...나두 중국갈까?

그런 사장의 뒤통수에 대고 엿을 먹이는 박사. 거의 동시에

**대규**

(다급하게 부르는) 사장님!

돌아보는 사장.

박사, 놀라 얼른 팔 내리자 낄낄거리는 대규.

### #3. 까페(낮)

경쾌한 댄스가요가 실내에 퍼지고 있다.

#### 대규

(음악에 맞춰 어깨 흔들며) 진영아, 내가  
이거 처음에 딱 듣고 물건이다, 뜨겠다  
그랬지? 생각나? (장담하듯) 이거 분명히  
다음 주에는 1등한다.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진영(22세)은 어떤 일인지 파르르 떨며 대규를 노려본다.

#### 대규

내 말 못믿겠다 이거야?  
좋아...(호주머니에서 봉투 꺼내 테이블에  
탁 놓는다. 제법 두툼하다) 이거 갖고  
있다가 다음주 1등 안되면 너 가져.  
(하는데 짹! 대규의 뺨을 때리는 진영)

사람들이 쳐다본다.

쪽팔리는 대규, 아이씨하며 확 해낼 듯 하더니 이내 표정 풀곤

#### 대규

그럼 넌 뭐가 1등된다는 거야? 말해봐,  
말해봐.

#### 진영

(울지 않으려고 앙다문 입술, 하지만  
눈에선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 같다)

#### 대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아니라 이거야?  
진영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싫음  
말구...(봉투를 다시 집어넣으려는데)

진영, 확 봉투를 채선 일어난다.

#### 대규

(예상했다는 듯 씨익 올려다보며) 너 임신  
아니지? 카드 빛 갇히려구 쇼하는 거지?

짹! 다시 날라오는 진영의 손. 대규의 뺨을 친다.  
진영, 끝내 눈물 한방울 떨어뜨리며 봉투를 대규의 얼굴에 던지곤 나간다.  
봉투에서 쏟아져 여기저기에 흩뿌려지는 만원짜리 지폐들...

**대규**

(돌아간 얼굴 정지한 채 흐르는 곡조에  
맞춰) 아,님,말,구.

#### **#4. 나이트클럽(밤)**

카페의 댄스가요 연결되어 쩌렁쩌렁 울린다.  
현란한 조명 아래 춤추는 청춘들.  
박사와 대규, 홀 한쪽에서 전체를 둘러보고 있다. 여자들이 별볼일이다.

**대규**

박사야, 물이 왜 이러냐?

**박사**

잘 봐줘두 3급수야.

**대규**

여기 안이랬잖아!

**박사**

공장폐수가 막 유입된거지. 오염된 물  
정화시키려면 몇 년 걸리지만 깨끗한 물  
오염되는데는 1주일도 안걸리거든...(막  
들어오는 여자 두명, 잘빠졌다) 형!  
1급수야, 1급수.

O.L.

스테이지, 1급수 여자들(20대 중반)과 춤을 추는 대규와 박사.  
대규, 그중 원피스차림의 여자(이하 여자1) 앞에서 갖은 익살을 떨며 춤을 춘다.  
여자가 대규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한다.  
대규, 잘 안들려 다시 귀를 갖다대면

**여자1**

(큰 소리로) 무슨 일 하나구요!

**대규**

(잠시 머뭇거리더니 귀에 대고 불법은

입모양으로만 하고) 음반유통업!

## #5. 대규의 원룸(밤)

테잎을 고르고 있는 여자1.

방 한쪽 미니컴퍼넌트 옆으로 여러개의 상자 속 테잎들만 빼곡하다.

**여자1**

왜 CD는 없어요? 음반 유통업한다면서...

**대규**

(작은 냄비를 렌지에 올리며)어, 그게..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길  
바라거든...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악의 대중화...(낄낄) 대중목욕탕 간지  
오래 됐는데...커피는 블랙?

여자1, 고개 끄덕이곤 죽 테잎들을 훑다가 구석끝에 있는 테잎을 꺼낸다.

오래전 좋아하는 곡들을 녹음한 듯 테잎 앞쪽엔 싸인펜으로 '1995.10.14'라고 써  
있다.

대규, 커피잔에 커피를 타는데 갑자기 시작되는 음악, 강력한 사운드의 락이다.

일순 굳는 대규, 너무 시끄러워 귀막는 시늉하며 가서는 테잎을 빼낸다.

**대규**

(쓰레기통에 던지며) 데모테잎이야.  
애들이 앨범 내달라고 보내온...(다른  
테잎을 넣고 버튼 누르면 흐르는 발라드)

대규, 뒤돌아 씨익 웃으며 여자를 안고 춤춘다.

**여자1**

(방안을 둘러보며) 집은 지방이에요?

**대규**

...지방제거수술했어.

**여자1**

?

**대규**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더  
고독해보이는) 고아야

대규의 외로운 눈빛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여자. 와락 대규의 입술을 훔친다.  
이게 웬 떡인가 싶은 대규. 여자를 침대에 쓰러뜨린다.

O.L.

물이 끓으며 냄비뚜껑이 달그락거린다.  
알몸의 대규, 여자 위에서 한창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분위기 깨는 초인종 소리.  
여자는 소리에 놀라 멈추는데 대규, 잠시 찌푸리곤 계속한다.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초인종.  
신경질적으로 일어나는 대규. 팬티를 끌어올리고 나가며 누구세요? 한다.  
아무 대답이 없다.  
다시 누구야? 하며 문 열면 배낭매고 서 있는 남자아이. 인권.  
입성이며 몰골은 추레한데 아무말 없이 대규를 올려다보는 눈빛만은 강렬하다.  
대규, 한 손으로 문을 잡고, 뭐야? 하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대규의 팔 아래로 해서 기습적으로 뛰어들어오는 인권.

욕실, 인권이 배낭맨채 급히 바지 내리고 소변을 본다.

### 인권

(혼잣말로) 씨발, 하마터면 쌀뵈했네.

대규가 문가에 서서 황당한 얼굴로 보고 있고 뒤로 여자가 옷을 추스르고 있는 게 보인다.

### 대규

(기막혀 인권 옆으로 와선) 너, 누구세요?

### 인권

(고개돌려 대규의 텐트 친 아랫도리 보곤  
내뻐듯) 아빠두 오줌마렵구나!

대규, 허!하고 웃으며 멍하니 있는데 인권은 물을 내리고 나간다.

원룸.

마치 자기 집인양 냉장고를 가는 인권, 물을 꺼내 마시고...

뒤따라 나온 대규, 그런 인권을 기도 안차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다.

인권은 배가 고픈지 냉장고 속에 다른 게 뭐 있나 보지만 캔맥주와 생수, 종갓집  
김치 팩이 전부다.

에이씨 하며 냉장고 문을 쾅 닫는 인권. 배낭을 벗어 바닥에 툽 던지곤 의자에 앉  
더니 짐짓 점령군처럼 집안을 둘러본다.



인권

집이 꾸지네. (여자보며 건들건들)

아줌마두 여기 살어?

대규

(점입가경이다. 인권 앞에 앉으며) 집을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

인권

(빤히 쳐다보며) 이.대.규! 맞지?

대규

!

인권

엄마 이름은 서.미.연. 고등학교때 엄마랑  
같이 밴드했다며? 노래는 엄마가 더  
잘했는데 아빠가 즐라 튀구 싫어해서  
양보했구.

대규

!!!

인권

(자리에서 일어나 짐짓 태연한척 방안을  
둘러보며) 이제 여기서 살라구. (가구등을  
만지며 후지다는 표정이지만 대규의  
반응을 살피는 불안한 눈빛은 감출수  
없는) 아차, 내 이름은 서인권. 전인권  
아저씨 이름을 따서 엄마가 지었대.  
아빠가 닮고 싶어...

대규, 미친 듯이 뛰어나간다.

## #6. 복도/계단/원룸앞 거리(밤)

복도를 두리번 거리다 팬티차림 그대로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현관을 지나... 원룸 앞 골목끝까지 가보지만 아무도 없다.

숨을 헐떡이며 멍하니 돌아서는데 서 있는 1급수 여자, 한대 칠 기세다.

대규. 그래, 때려라 하고 눈 감는데

여자, 한심한 듯 들고 나온 대규의 남방을 던진다.

대규의 얼굴을 뒤덮는 남방.

## #7. 원룸(밤)

남방을 걸친 대구, 커피타려고 물 끓였던 그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다.

**인권**

(의자에 앉아) 차비할 돈 겨우 만들어서  
왔다니까.

**대구**

돈을... 만들어?

**인권**

그 자식 걸리기만 하면 죽어버릴거야.

**대구**

(무시무시하다. 머리 아파 죽겠는)  
그러니까...혼자 여길 찾아왔다? 엄마한테  
편지 써놓고...오는동안 소매치기한테  
돈도 다 날려서 밥도 못먹고 차비를  
만들었고...

**인권**

(끄덕끄덕)

**대구**

여기 주소는 어떻게 알구?

**인권**

어...(일어서며) 다 아는 수가 있지.  
(냄비 쳐다보며) 파 없어?

**대구**

...?

**인권**

계란은?

**대구**

(기막힌) 사올까요?

**인권**

(한심하게 보곤) 그럼 다 불지!

**대구**

...(젖다)

O.L.

냄비에 얼굴을 박고 허겁지겁 라면 먹는 인권.

맞은 편에 앉아 그런 인권을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대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 현실감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계산이 안서고...

**대규**

(정신 차리려고 머리를 흔들곤 핸드폰  
꺼내며) 엄마 핸드폰 번호 불러 봐. (들은  
척도 않고 먹기만 하는 인권) 아!

인권은 여전히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기만 한다.

**대규**

(바라)엄마 핸드폰 번호 몰라?

**인권**

왜? 엄마한테 데려가라구 할라구? 난  
여기서 살거라니까!... 내가 싫어?  
(똑바로 쳐다보면)

**대규**

아니...그런게 아니라...엄마가  
걱정하잖아. 넌 결국 가출한거 아냐. 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가출이야?

**인권**

이게 왜 가출이야, 이사지. 엄마  
걱정안해. 편지에 다 써놨어.(다시  
먹는다)

**대규**

(미치겠는) 니 말만 듣구 니가 내 아들인  
걸 어떻게 믿어? 난 니가 있는 줄도  
몰랐고 분명히 그때 난(더이상 잊지  
못한다)

**인권**

난 뭐?

**대규**

(말문 막히는...)어쨌든 확인은 해야될 거  
아냐! 전화만 걸테니까 불러봐.

인권은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듯 먹기만 한다.  
대규, 열받아 핸드폰 침대에 던지곤 머리통을 싸꿍다.  
그러다 고개드는 대규...환하게 웃는 부드러운 얼굴이다.

**대규**

(부드럽게) 천천히 먹어, 체할라. 몇  
살이야? 학교 다니지?

**인권**

(순순하게) 응.

**대규**

그래... 몇학년?

**인권**

2학년.

**대규**

2학년치곤 꽤 큰편이다. (최대한  
부드럽게) 어느 학교~?

**인권**

...(얇은 수에 안넘어간다는 듯 흐흐흐  
웃곤 또다시 고개 박고 먹는다)

벌떡 일어나는 대규, 한대 칠 듯 하다가 바닥에 놓인 인권의 배낭을 본다.  
그렇지! 하며 달려가는 대규. 배낭을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낸다.  
옷가지들. 만화책, 노트와 필통, 장난감, 구식 워크맨, 노래 테잎들...  
와중에도 인권은 묵묵히 라면만 먹는다.  
대규, 살살이 뒤지고 살펴보지만 인권의 주소, 학교 등을 알만한 무엇은 나오지  
않는다. 열받아 물건들을 마구 해집곤 벽에 등을 기대는데

**인권**

(씨익 웃으며) 식은 밥 없어?

**대규**

...(허! 이 놈 봐라!)

## **#8. 대규의 착안 / 거리 (밤)**

창밖에 고개를 내밀고 시원하게 바람을 맞는 인권.  
운전하며 그런 인권을 흘깃 보는 대규, 짐짓 안스런 표정으로

**대규**

꼬마야. 어떡허냐? 니가 너무 실망할까봐  
얘기 안했는데 실은...난 니 아빠 아냐.  
니 아빠이름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척)이,대,규라고 했나? 내 이름은...

김정식이야. 김정식.

**인권**

(무슨 개소리?)

**대규**

어쩌면... 전에 살던 남잔지도 모르겠다.

**인권**

쌩까지 마. 사진 본 적 있어.

**대규**

이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차를 세우는 대규. 인권의 어깨를 잡곤 마주본다.

**대규**

못밧겠어? 그럼 방법이 없네. 니 엄마하구 삼자대면하는 수밖에...그지?

인권의 옆으로 승용차 한대가 서는데 열린 창문으로 음악이 들린다. 락음악.

**인권**

어? 저거 부활인데... 죽인다. 저런게 있었나? 처음 듣는데...

**대규**

충격이 크겠지. 이해해. 그래도 어떡하니? 진실을 외면할 순 없는 거잖아.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다.

**인권**

(뭔가 골똥히 생각하다...알아내 기뻐)  
신곡 냈나부다.

**대규**

(열받아 급출발하며) 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휙 골목으로 우회전하더니 얼마 안가 차를 세우며) 이 방법 밖엔 없어.

파출소 앞이다.

어? 하는 인권, 파출소 불빛을 바라보며 간죽대던 얼굴이 진지하게 굳는다.

어느새 내린 대규, 조수석 문을 열지만 인권은 앞만 보고 있다.

내리라며 인권을 끌어내리는 대규. 손잡이를 꼭 잡고 버텨기는 인권.

**대규**

(끌어내리는 걸 멈추곤 굳은 얼굴로  
나지막하게) 좋아, 마지막이다. 엄마  
핸드폰 번호?

**인권**

(배째라 분위기로) 몰라 씨발.

**대규**

쫓그만 자식이 보자보자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인권을 끌어내리며)  
나두 너 몰라, 미아신고 할테니까...

**인권**

(버텨기다 대규의 손을 입으로 콧 깨문다)

**대규**

아아! (물러서서 손을 호호 불며  
혼잣말로) 아이씨, 뭐 저런 새끼가  
다있어? 그지 발싸개 같은 기집애. 나쁜  
년. 지 맘대로 일 저질러놓고...애새끼 꼭  
뭐같이 키워...헉!(인권이 온몸을 실어  
머리통으로 옆구리를 박았다)

어느새 차에서 내린 인권. 대규가 피할틈도 없이 미친 듯이 머리를 박으며 대규를  
때린다. 대규, 겨우 인권의 두팔을 잡아 제압하고 보면

**인권**

(대규 노려보며 씩씩거리다) 울엄마  
욕하는 새끼 누구든지 가만 안둬.(팔을  
뿌리치곤 배낭매더니 두벅두벅 파출소로  
걸어간다)

그런 인권을 놀라 보고만 있는 대규.

인권이 파출소 앞에 다다라 문고리를 잡은채 잠시 멈추자 조금은 양심이 찢리는  
대규, 다시 부를까 하는데 인권은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간다.

**대규**

(어찌됐든 해결됐다. 손 흔들며) 잘...가.  
안녕!

인권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한 순경이 다가와 인권에게 말을 거는 게 보인다. 대구, 잠시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다 얼른 '몰라, 몰라, 몰라'하면서 털어내곤 차에 오른다.

## #9. 대구의 원룸(밤)

막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의 대구, 캔맥주를 손에 든채 방안을 왔다갔다하며 핸드폰 통화하고 있다.

대구

...그럼, 살아 있었지...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왜 그럴 때 있잖아...옛날 친구나 사귀던 여자 생각나는...그래서 말인데...너 혹시 미연이 연락처 아니?

INTERCUT, 강원도 어느 소도시의 마당이 보이는 허름한 집 마루, 런닝 차림의 고교동창이 전화를 받고 있다.

동창

야!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너하구 같이 안있어?

대구

(한 숨 내 쉬곤) 아냐. 나 거기 뜬 뒤로 한번도 본 적 없어.

동창

그래? 난 같이 서울 간 줄 알았는데...너 여기 뜬 다음에 얼마 안 있다 개두 집 나갔잖아. 너 윤정이 알지. 미연이랑 친했던...개 서울루 시집 갔거든...개가 한번 만났다고 그러드라.

대구

그래?...너 윤정이 전화번호 아니?...그럼 좀 알아봐 주라...아니, 그냥 궁금해서...

동창

...느이 누나 얼마전에 시집 간 거 알어?

대구

...

**동창**

느네 아버지 지금 혼자사신다.

**대규**

(차갑게) 집에는 암말 마라.(끊는다)

캔맥주를 한모금 마시곤 TV를 켜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행여 인권이 도로 왔나 싶어 숨죽인 채 가만히 있는데  
굵은 바리톤의 목소리가 아무도 안계세요?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린다.

**대규**

(아니구나 싶어) 누구세요?

**바리톤(OFF)**

여기가 이대규씨택 맞습니까?

대규, 그제야 일어나 문을 열면 버티고 서 있는 짧고 건장한 체격의 순경...그리고 그의 등에 업혀 자고 있는 인권!

O.L.

침대에 등을 맞대고 나란히 누운 대규와 인권. 인권은 끌어떨어졌다.

**순경(OFF)**

놀다 길을 잃었대요. 시골애들이 서울  
오면 그렇죠.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오다  
잠이 들었어요.

대규, 열받아 푸푸거리고 있는데 대규의 목에 척하니 감기는 인권의 팔.  
성가신 대규, 팔을 치우면 다시 걸치고....  
인권의 팔을 치우고 벽쪽을 보도록 해서 침대 끝으로 완전히 밀어넣곤 등돌려 이  
쪽 끝에 눕는 대규.

## #10. 복도(아침)

복도에서 내려다본 원룸 앞 골목,  
대규, 에이씨하며 세워진 자신의 차를 그냥 지나쳐 걸어간다.  
그런 대규를 복도창가에 서서 보고 있는 인권, 씨익 웃으며 손에 든 장난감 뚜껑  
을 연다.....대규의 열쇠꾸러미.



## #11. 거리(아침)

씩씩거리며 걸어가는 대규. 한순간 이상한 느낌에 뒤돌아 보면 인권이 바로 3미터 뒤에서 쫓아오다 멈칫 선다.

기막힌 대규, 뒤돌아 이번엔 조금 빨리 걷는다.

종종걸음으로 쫓아가는 인권.

대규, 걸어가다 확 뒤돌아 인상쓰면 인권, 움찔하며 멈춘다.

좀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대규.

뛰다시피하는 인권.

4차선 도로의 인도,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걸어간다.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가는 대규, 땀이 마구 흐른다.

슬쩍 뒤돌아보면 저 뒤에서 죽어라 뛰어오는 인권이 보인다.

조금씩 거리가 벌어진다. 조금만 더 가면 지하철 역.

지까짓게 그림 그렇지 하면서 대규, 역을 향해 뛰어가는데

### 인권(OFF)

(울음섞인) 아빠! 아빠! 같이가!

멈칫 서는 대규, 질끈 눈감고 그대로 뛰어가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대규를 세우며 뒤를 보라고 한다.

길바닥에 엎어져 처절하게 아빠! 를 부르는 인권.

왜 얼른 아이에게 안가냐고 종용하는 사람들의 시선...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대규.

## #12. 지하공장(낮)

돌아가는 테잎들을 신기한 듯 둘러보는 인권.

### 인권

(대규에게) 이거 다 삼촌이 만드는 거야?

박사와 함께 이쪽에서 다 복사된 테잎들을 꺼내던

### 대규

조용히 입다물고 있어라.

### 박사

(킁킁거리며) 조카 아니지?

대규

(같이 킁킁 거리다) 실은 조카딸이다.

박사

가출 9년차라는 거 내가 아는데 무슨...

인권

삼촌. 화장실...

대규

(짜증나는) 좀 전에 갔다 왔잖아!

### #13. 화장실 안(낮)

칸막이 안, 변기 위에 앉아 핸드폰 통화하는 대규.

대규

241에 5535, 5535. 그래 고맙다... 잘있어.

언제 한번 술한잔 하자. (끊으려는데)

동창(F)

느네 아버지, 어젯밤 술드시구 트럭

몰다가 하마터면 큰일날뻔 했대.

대규

야, 여기 지하라 잘 안들린다. 끊을게.

대규, 전화 끊곤 전화번호를 외우며 다시 전화한다. 신호가 가고

대규

여보세요? 윤정이니? 나 대규야. 이대규.

기억나지?

### #14. 화장실 앞 복도(낮)

인권, 복도의 사각부리를 놀이터 삼아 한발로 뛰기놀이를 하고 있다.

한순간 어지럼증으로 휘청하는 인권, 머리를 싸안은채 벽에 기대며 쭈그리고 앉아 심호흡을 한다. 그런 인권의 모습 위로

윤정(F)

혼자 애키우면서 이 악물고

살더라구...그게 2년쯤 됐어. 그 다음엔  
몰라. 어느날 아무 연락도 없이  
이사가서...핸드폰 번호도 바꿨더라구...

### #15. 지하공장(낮)

뒷걸음치면서 작업공정 살펴보는 사장. 두두두두 뛰어들어오는 인권과 부딪친다.

**사장**

(인권의 어깨를 꼭 잡곤 인상쓰며) 넌  
뭐야?

**인권**

(기분 나쁜 듯 쏘아보며) 이거 안놔!

**박사**

(얼른 다가와) 형 조카래요.

고개 숙인채 고민에 잠겨 들어오는 대규.

**사장**

너 제정신이야?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대규**

누나가 오늘 하루만 좀 봐달라구...

**사장**

(인권 놔주며) 그렇다구 여길 데려와!  
당장 데려다 주고 와!

대규. 뭐라고 더 얘기를 해보려다 관두곤 힘없이 인권을 데리고 나간다.

**사장**

(대규의 뒤에 대고 소리지르는) 단속이  
얼마나 심해졌는줄 알아? 스트레스 때문에  
요샌 새벽에두 그게 안선다.

### #16. 골목 은혜슈퍼 앞/거리(낮)

파라솔, 대규는 지친 듯 하드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고

인권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음료수 마시며 혼자 떠벌린다.

### 인권

그 자식은 누구야? 아빠보다 높아?  
...(대규가 말이 없자 한모금 마시고)  
이제 노래 안해? 남의 테잎만 만들구  
아빠건 안 만들어?... 나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녹음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건 첨봤어. 100개가  
한꺼번에...우우...대빵 빨리 돌더라.

안에서 나오던 두 남자가 선 채로 유심히 인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대규, 하드가 녹아 떨어지는 줄도 모른채 여전히 멍하고...

### 인권

근데 단속이 뭐야?

듣고 있던 두 남자,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 받는다.  
그제서야 눈치챈 대규, 두 남자를 딱 보아하니 형사다.

### 인권

그 자식이 그랬잖아. 단속이 심해서  
새벽에...

하는데 대규, 얼른 손에 들고 있던 하드로 인권의 입을 틀어막는다.

골목을 걸어가는 대규와 인권, 형사들이 뒤따라온다.  
눈치챈 대규, 걸음을 빨리하지만 인권이 못 쫓아온다.  
하는수 없이 인권의 손을 잡고 빨리 걷는 대규.  
인권은 갑자기 손까지 잡고 대규가 왜 그러는지 어리둥절하다.  
대규, 왼쪽 골목으로 꺾어들면 형사들도 골목으로 들어간다.  
다시 저 앞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대규와 인권.  
형사들, 걸음을 빨리해 오른쪽 골목 보면 어느새 사라진 대규와 인권.  
골목 끝까지 뛰어가 여기저기 살펴보지만 어디에도 없다.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가게 안으로 살림집 마당이 보이고 그 뒤로 다른 골목과 연  
결된 대문이 보인다.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형사들.

다른 골목.

인권을 어깨에 메고 큰길쪽으로 죽어라 뛰는 대규, 비오듯 쏟아지는 땀.

큰길에 다다를 즈음 저 뒤에서 형사들이 뛰어오는 게 보인다.

버스정류장,

골목에서 큰길로 나온 대규, 막 떠나려는 버스를 겨우 잡아 탄다.

## #17. 버스 안(낮)

대규, 인권을 어깨에 맨채로 숨을 헐떡이며 창밖 보면  
뛰어오다 멈춰서선 떠난 버스를 바라보는 형사들.  
휴우하는 대규.

**인권**

아빠, 내려줘.

대규, 그제야 인권을 자리에 내려놓곤 숨 몰아쉬며 앉는다

**기사(60대)**

차비 안내?

대규, 호주머니에서 동전 꺼내 넣는데 올리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대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대규**

(통화)네.

**남자(F)**

니가 이대규야?

**대규**

(기막혀) 넌 누구야?

**남자(F)**

진영이 오빠다. 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대규, 얼른 핸드폰 끄곤 전원까지 꺼버린다.

에이씨 하며 인권의 뒷자리에 앉는데

**기사**

또 그냥 앉어? 한사람것만 냇잖아! 애가  
뭘 보구 배우겠어? 어? 급한척 차비  
안넬라 그러구 은근슬쩍 떼먹을려구

그러구...애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면 돼?

확 뭐라고 대꾸하려다 관두는 대규. 통에다 천원짜리 집어넣곤 털썩 다시 앉는다.

**기사(OFF)**

거스름돈 가져가.

**대규**

됐어요.

**기사**

돼긴 뭐가 돼? 얼른 안 가져가?

**대규**

(바락) 나 좀 제발 가만 나둬! 나두라구!

**기사**

(움짤하곤 혼잣말로) 젊은 놈이

승질은...(다음 정류장 안내방송 버튼을 누른다)

대규, 이제야 한숨 돌리며 맘을 닦는데 앞자리의 인권이 뒤돈다.

**인권**

(고추를 붙잡고)오줌...

대규, 차라리 죽고 싶다.

## #18. 식당(낮)

테이블 위 두개의 소주잔에 채워지는 소주.

마주 앉은 대규와 인권, 건배를 한다.

어쩐 일인지 밝은 표정의 대규. 기분 좋게 완샷을 하고

인권, 조금 맛보곤 너무 쓰지만 꼭 참으며 괜찮은 척 한다.

**대규**

아! 보구 싶다. 되게 예뻐는데...엄마

아직두 이쁘지?

**인권**

그럼 이제 나 믿어? 아빠 아들인거?

**대규**

(고개 끄덕)

인권

(아직은 의심스런)

대규

(짐짓 진지하게)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그랬지...니가 내 입장 되서 생각해봐. 난  
니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여기서 나하고 살 수는 없어. 너도  
봤잖아. 난 회사두 가야되구...엄마하구  
살면 내가 보러 갈게. 진짜야. (주먹  
내밀며) 남자대 남자로 약속.

인권

(주먹 낼까말까 망설이며) 또 뺨끼치는 거  
아니지?

대규

(걸렸어! 하면서도 짐짓) 그럼! 일요일날엔  
아빠가 갈게. 우리 일요일날 뭐할까?

인권이 주먹을 쥔채 망설인다.

초조하게 지켜보는 대규.

다가오는 인권의 주먹, 다시 뒤로 물러나다 결심한 듯 대규의 주먹에 부딪친다.  
됐어!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대규, 두세번 주먹을 더 부딪치며 표시나지 않  
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대규

그럼 밥먹고 엄마한테 가는 거다.

인권

저기...엄마한테 가기전에....아빠하구  
딱 하나 하고 싶은게 있는데...

대규

그것만 해주면 가는거지?

인권

(고개 끄덕이며 주먹을 내밀면)

대규

(주먹을 부딪치곤 관대하게) 뭐든지 말만  
해.

인권, 대규쪽으로 와선 귓속말하려고 한다.

다정한 미소 지으며 귀를 내주는 대규.

## #19. 원룸 복도(저녁)

광 닫혀지는 문.  
인권이 배낭맨채 문 앞에 서 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대규**

(만원 던지며) 이거면 차비 되지? (다시  
광 문닫는다)

안에서 문 걸어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인권.

## #20. 원룸(저녁)

창가에 서서 전화하는 대규.

**대규**

친구 아직 거기 있다며?

**INTERCUT**, 지하공장,  
사장의 눈치보며 전화하는 박사.

**박사**

술먹을때 친구지. 맨 입으로  
일부탁하라구? 그 새끼하구 저번에  
싸웠는데... (메모지에 서미연이라는  
이름과 강원도 주소 보며) 이게 누군데?  
애 엄마야? 한 동네 살았구나...

**대규**

(말 자르며) 핸드폰 번호만 알아내.

**인권(OFF)**

약속했잖아. 남자대 남자루!

**대규**

(전화기에 대고) 최대한 빨리, 알았지?  
(전화 끊곤 문 앞으로 가서)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장난해 지금?



복도, 문 앞에 서 있는 인권.

문을 사이에 두고 한 화면 속에서 마주서서 악을 쓴다.

**인권**

그런거 아냐. 진짜야!

**대규**

너...그게...(기막혀 말도 잘 안된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건 어른도  
하기 힘들어. 넌 못해!

**인권**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봤어. 나만한 애들두  
하는거...할 거야!

**대규**

미쳤냐? 이 땡별에 그걸 왜 해?

**인권**

하구 싶으니까!

**대규**

그렇게 이상한게 왜 하구 싶어?

**인권**

내맘이지!

**대규**

나두 내 맘이야. 못해! 안해! 그거 말구  
딴 거 얘기해봐.

**인권**

....

**대규**

없어? 그럼 얘기 끝! 잘가! (욕실로  
들어간다)

대규, 화면에서 사라지고 인권, 땡 현관문을 찬다.

## #21. 몽따쥬(밤)

원룸,

대규, 팬티 차림으로 침대에 기댄채 시트콤 보고 있다.

TV 화면, 누군가 외장창 넘어지고 웃음소리 깔린다.

복도,

길길거리며 마구 웃는 인권. 바닥에 주저 앉아 만화책을 보고 있다.  
인권의 뒤로 복도 반대편 끝방으로 걸어가는 중국집 배달원의 모습이 보인다.

원룸,

대규, 가스렌지 위 다 끓인 라면 냄비를 테이블로 옮겨 놓는다.

복도,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인권.

원룸,

침대 시트와 배개를 정돈하는 대규.

복도,

자리에 눕는 인권, 옷을 바닥에 깔았고 배개는 가방으로 대신했다.  
워크맨 이어폰을 낀고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원룸,

어둠 속, 침대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자는 대규.  
한밤의 고요를 깨뜨리는 돼지 먹따는 소리, 인권의 노래소리다.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살다보면 그런거지/우후후후 말은 되지  
모두들의 잘못인가/난 모두를 알고 있지 닥쳐!

복도,

문 앞에 서서 워크맨으로 노래 들으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인권.  
말 달리자 말 달리자/말 달리자 말 달리자/

원룸,

휴지로 귀를 틀어막는 대규.  
그럼에도 들리는 인권의 샤우팅.

원룸 복도,

고래고래 노래부르는 인권.  
옆방 사람들이 누구야? 하며 하나들 나온다.  
더욱더 소리 높여 방문에 대고 노래부르는 인권.

## #22. 원룸(밤)

대규

(통화) 거기 경찰서죠? (힐금 보면 한쪽

구석에 손들고 서 있는 인권)  
어떤 강패같은 애가 무단가택 침입에  
고성방가, 그리구 열쇠두 훔쳐갔구요.  
여기가요. 네...(핸드폰 손으로 가리고  
인권에게) 너 소년원이 얼마나 무서운덴지

알아?

인권

...

대규

어떡할래?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간다 그럼  
내가 데려다주구.

인권

(조그맣게) 나 아빠회사 어딘지 아는데...

대규

뭐?

인권

아빠회사 어딘지 안다구...

대규

허! 이제 협박까지...니가 알긴 뭘 알아?

인권

계산 역에 내려서 2번으로 나가서 (기억을  
더듬으며) 한참 가다가 (들었던 팔 내리고  
손짓하며) 은혜슈퍼에서 쪽 가면 나와.

완전히 졌다!는 얼굴의 대규. 팔에 힘이 빠지며 핸드폰 들었던 팔을 툭 내린다.  
경찰과 통화중이었던 핸드폰에서 울리는 벨소리.  
아이씨 하고 받으면

**남자(F)**

(따다다다) 야, 이대규! 이 개새끼야!

전화만 끊으면 무사할 것 같냐?

위치추적하면 너 있는데 금방 알아낼수

있어...너 내손에 잡히면...

참담한 심정으로 풀더 닫는 대규.

인권

(내려간 두 팔 얼른 위로 올리곤 씨익

웃으며) 그것만 하면 간다니까.

대규, 울고 싶다.

O.L.

종이에 뻘뻘 글씨를 쓰고 있는 인권.

**인권**

(입으로 한글자씩 발음하며 쓰는)

포.기.했.을...(해까지 쓰곤) 했을 할때  
해 밑에 받침이 뭐야?

**대규**

쌍시옷, (머리통 때리며) 그것두 몰라?

**인권**

왜때려! (씩씩거리며 '했을' 쓰고나면)

**대규**

경.우.에.도

**인권**

(방어자세 취하며) 띠고 안 띠고?

O.L.

대규, 인권의 엄지에 인주를 묻혀 종이 맨 아래 '2003.7.26. 서인권'옆에 꺾 하고 누른다. 종이 맨 위엔 <각서>. 그 아래 '두말 없이 엄마에게 가겠습니다''만약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에도''이를 어길시는'등등의 글자가 보이고... 글자의 크기가 들쭉날쭉인건 물론 맞춤법, 띄어쓰기 모두 엉망이다.

### #23. 몽따쥬

들판, 낮

푸른 평야를 달리는 기차.

**대규(V.0.)**

사흘만 휴가 쓸게요.

기차 안, 낮

어딜 가는지 나란히 앉아 있는 두사람.

인권이 뭐라고 얘기하자 대규,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박사(V.O.)**

형 미쳤어?

어느새 창밖엔 어둠이 내렸다.

자고 있는 인권을 가소롭게 보며 회심의 미소짓는 대규.

**대규(V.O.)**

사흘이면 게임 끝난다.

## #24. 해남 땅끝마을(아침)

아침 햇살이 비추는 푸른 바다.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는 대규와 인권, 둘다 배낭을 매고 모자를 썼다.

**대규**

(사극 풍으로 한시 읊듯) 파도여  
슬퍼말아라 파도여 춤을 추어라/끝없는  
몸부림에 파도여 파도여 서러워마라/  
김추자님의 시가 생각나는구나.  
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끝, 땅끝마을  
아니더냐! 하하하!(자기가 하고서도 되게  
웃긴가 보다. 짹짹거리며 인권 보면)

기도하듯 눈감고 있다 눈을 뜨는 인권, 대규의 장난에 화답하듯 웃는다.

사이좋은 부자처럼 서로 마주보며 짹짹 웃는 두사람.

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린다.

뒤돌아보면 한 부리의 대학생 국토종단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규**

(호기롭게) 야, 우리두 찍자. (핸드폰  
폴더 열어 찍으려는데)

**인권**

됐어. (다른 쪽으로 간다)

**대규**

(쫓아가 인권을 붙잡으며) 야, 왜?  
역사적인 순간인데 기념촬영 해야지.

**인권**

촌스럽게, 됐다니까.

**대규**

(쓱스러워서 그런가) 짜식! (나란히  
도로의 시작점에 서서는) 자, 그럼 출발!

대규의 출발 구령에 맞춰 나란히 오른발을 내딛는 두사람.  
두팔을 저으며 군대식으로 걷는 두사람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대규**

(노래부르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O.L.

한낮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혼자 씩씩하게 걸어가는 대규, 어느새 등 뒤가 땀에 흠뻑 젖었다.  
대규, 뒤돌면 10미터쯤 뒤로 인권이 걸어온다.  
벌써 지친 듯...인권의 걸음걸이가 무겁다.  
히죽 웃곤 다시 성큼성큼 걸어가며 노래부르는 대규.

**대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걸어 나가면 (힐끗  
뒤돌아보면)

힘들어 주저 앉는 인권.

**대규**

(온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의  
곡조에 붙여) 벌써부터 이러~시면 게임이  
너무 시시하지~ (인권에게로 가며)  
왜? 힘들어?

**인권**

(숨을 고르며 물을 꺼내 마신다)

**대규**

힘들면 관두구...

**인권**

(땀을 닦고 다리를 두드린다)

**대규**

이 정도도 많이 걸은 거야. 사람이 관둬야  
할 때 딱 관두는 것도 용기야. 열  
셀때까지 못 일어나면 포기하는 걸로  
간주할게. (빠르게)하나, 둘, 셋, 넷,  
다섯...열!

대규의 열!과 동시에 꼬응 몸을 일으키는 인권, 씨익 웃으며 등 좀 굽어달란다.  
화답하듯 웃곤 등을 아프게 박박 긁는 대규.

## #25. 몽따쥬(도로, 낮)

작열하는 태양 아래 걸어가는 대규, 20여미터쯤 뒤로 인권.  
별경게 달아오른 대규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는 인권의 얼굴에서도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30미터, 40미터, 점점 더 벌어지는 간격....

나무그늘에 뻗어있는 인권앞에서 회심의 미소지으며 손가락 짚는 대규의 모습들.

저 앞으로 걸어가는 대규가 개미처럼 보인다.  
다리힘이 풀려 점점 흐느적거리는 인권.

커브길, 대규가 뒤를 돌아봐도 이제 인권은 보이지 않는다.

## #26. 여관(저녁)

욕실,  
샤워하는 대규, 살 것 같다.  
문이 열리고 완전히 지친 얼굴의 인권이 배낭맨채 기어서 들어온다.  
급히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는 인권, 겨우 벽을 잡아 지탱한다.  
대규, 그런 인권 보며 독한놈!하곤 머리에 샴푸를 한다.  
인권, 오줌을 다 누고 물을 내리자 머리 행구다 앓뜨거! 소리지르는 대규.

인권

더운데 왜 뜨거운 물루 해? (나가는)

대규

야! (맵기는 맵고 눈도 못뜬 채) 너 이리  
안 와!

O.L.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욕실에서 나오는 대규. 보면 인권이 티셔츠 한쪽 팔은 채 벗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뺨어있다.

### 대규

끝까지 버티더니....야, 씻어. 씻구자!  
(인권을 흔들며 깨우며) 야!

폼짝 앓는 인권.

O.L.

침대에 똑바로 누워 자는 인권. 팬티만 입고 있다.

아, 드러! 하면서 인권의 발과 다리를 물수건으로 대충 닦아주는 대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싶다.

가슴으로 올라와 겨드랑이와 목을 닦곤 등쪽을 닦기 위해 인권을 엮으려는데

한순간 대규의 목을 양팔로 감싸는 인권.

얼른 인권의 팔을 떼어내곤 바로 앓는 대규, 이 새긴 잠만 자면 변태야 어찌구 하면서 물수건을 획 던져버린다.

## #27. 읍내 나이트 클럽(밤)

말이 나이트클럽이지 거의 시골 노인네들이나 상대하는 카바레다.

절망어린 시선으로 실내의 여자들을 휘 둘러보는 대규.

### 대규

이건 완전히 공업용수네.

공업용수들 속 유일한 3급수 여자가 눈에 띈다.

하는 수 없지 하며 3급수 여자에게로 다가가는 대규.

## #28. 해남 지방도로(낮)

띠약벌 아래 걸어가는 대규.

그 한참 뒤에서 인권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늘은 끝장을 내겠어 하면서 더욱 더 속도를 내는 대규.



O.L.

길가에서 약간 들어간 곳.  
나무 그늘 아래 숨을 몰아쉬며 주저 앉아 있는 인권.  
대규, 옆에서 쉬를 하며 하나, 둘, 셋을 세고 있다.  
아홉에서 일어나는 인권, 대규 옆에 서서 나란히 오줌을 본다.

### 대규

너 차라리 기저귀를 차는게 낫지 않냐?  
30분 간격으로 바지 내리구 고추 까구  
그러느니... (힐금 보며) 애기 고추에  
오줌발두 완전 애기  
오줌발이구...기저귀가 딱이다.

### 인권

(짜려보면)

### 대규

왜? 맞잖아. 봐, 비교해봐.

인권, 씨이! 하면서 몸을 옆으로 튼다.  
그 바람에 대규의 오른발에 인권의 오줌이 떨어지고 대규, 어쭙하면서 몸을 틀어  
인권의 발을 겨냥한다.  
인권, 얼른 피하며 대규의 뒤로 가자 대규도 뒤돌며 인권을 향하고...  
그렇게 서로 꼬리뽀기를 하듯 빙빙 돌며 오줌장난을 치는 두사람.

O.L.

완만한 경사를 내려가는 대규, 한참을 가다 뒤를 돌아봐도 인권이 보이지 않는다.  
잠깐 멈춰서선 기다리다 다시 언덕을 올라가 보면 언덕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 인  
권, 멍하니 어딘가를 보고 있다.  
대규, 씨익 웃곤 하나 둘 셋을 하기 위해 다가가려다 문득 멈춘다.  
인권의 시선...이 건너편 갯길, 차를 세워놓고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사진을 찍는  
한 가족에 머물러 있다.  
아빠가 삼각대를 설치해놓곤 엄마와 두 아이의 뒤로 얼른 뛰어간다. 아빠가 뭐라  
고 했는지 까르르 웃는 가족들...찰칵 사진이 찍힌다.  
부러운 듯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인권.  
대규, 마음이 짠해질려고 한다.

### 대규

(얼른 외면하고 돌아서며) 배경도  
후지구만...(휘적휘적 언덕을 내려간다)

올리는 핸드폰.

**대규**

(통화) 어...정말?

**박사(F)**

내가 그새끼한테 어제 술값으로 얼마나  
날렸는줄 알아?  
다음달 카드 결제 형이 해야 돼.

**대규**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짜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

**박사(F)**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바루야. 근데 주소는  
옛날 주소더라. 전출지두 없구...하여튼  
핸드폰 번호 찍을테니까 걸어봐.

**대규**

알았어. (전화끊곤 길가 적당한 곳에  
앉는다. 조금은 긴장된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들리고 머뭇거리다  
통화버튼을 누른다. 신호가 가고)  
저...여보세요? (전화선 너머 아무말이  
없다) 미연...이니?

## #29. 강남의 여성복 명품점(낮)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있는 미연, 세련된 차림이다.

**대규(F)**

여보세요?... 여보세요?...혹시 서미연씨  
핸드폰 아십니까?

**남자(40대, OFF)**

재희야!

**미연**

(놀라 폴더를 접는다)

**남자**

(고른 옷을 가리키며) 이거 한번 입어 봐.

미연, 짐짓 웃으며 옷을 받아 들고 탈의실로 향한다.  
도와주기 위해 뒤따라오는 여종업원.

탈의실.  
여종업원, 미연의 원피스 뒤 단추를 풀어준다.  
거울 속 멍한 미연.  
다시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미연.

### #30. 도로(낮)

**대규**

(통화) 번호는 맞는데 아니라구요. 네  
죄송합니다.

INSERT,

명품점 탈의실,  
여종업원이 핸드폰을 미연에게 넘겨준다.  
어색하게 미소짓는 미연.

**대규**

(통화) 야, 제대로 알아본거야? 딴  
사람이 받잖아! 너 나한테 술값 덤태기  
씩올라구 사기친거지?

**박사(F)**

뭐?

**대규**

똑바로 다시 알아봐. 이번에두 아니면...

**박사(F)**

아, 관둬!(끊는다)

대규. 확 전화 끊곤 한숨을 내쉬다.  
언덕에 뼈죽이 나타나는 인권의 머리.  
지친 걸음걸이로 힘겹게 언덕을 내려온다.

**대규**

어차피 내일이면 쫓이다.

### #31. 여관(밤)

샤워를 하고 나온 인권, 팬티 차림으로 다리에 크림을 잔뜩 발라 맛사지한다.  
거울 앞에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대규, 그런 인권을 힐끔 보며

대규

발악을 하는 군...

대규, 머리를 다 말리고 헤어젤을 발라 모양을 낸다.  
그 뒤로 바닥에 앉아 맛사지 하던 인권, 갑자기 어지러워한다.  
방안이 빙빙 돌고... 그러다 옆으로 콧 쓰러지는 인권.

대규

(거울 보며 흡족해하곤 나가려다가)야,  
오줌보! 목욕탕에 벗어논 옷들 빨아 놔.

인권

(고통스러워하며) 아파서 못해.

대규

(그런 인권의 머리에 꿀밤 먹이며)피병  
부리지 말구!(나간다)

광 닫히는 문.

### #32. 도로(낮)

드디어 셋째날...날이 흐리다.  
20미터쯤 간격을 두고 걸어가는 두사람.  
어쩐 일인지 거리가 조금씩 좁혀진다.  
앞서 걸어가던 대규의 속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지친 표정의 대규, 발도 아파서 약간 절룩거리고 어제 먹은 술로 속도 안 좋다.  
뒤돌아 보면 어제보다 발걸음이 가볍고 표정도 밝은 인권이 점점 다가온다.

대규

(인권이 다가오자 부드럽게) 배 고프지?

인권

아니.

대규

(끄응...)

### #33. 식당(낮)

김밥을 먹는 두사람.  
동시에 김밥 속에서 오이를 빼내곤 먹는다.

**인권**

(너무나 신기해하고 좋아하며) 아빠두  
나랑 똑같네, 오이 빼낸다구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아빠는 아빠두 그러니까 날 혼낼  
수가 없잖아. 킬킬...

**대규**

...(징그런 느낌이다)

식당 아줌마들. 대체 몇 살때 사고를 친 거냐며 숙덕거린다.

**대규**

(이 갈며 나즈막하게) 사람들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말랬지! 너 한번만  
더하면...

**인권**

(악을 쓰는) 아빠!아빠!아빠!아빠!

대규, 미치겠다.

### #34. 도로(낮)

비가 올것처럼 구름이 드리운다.  
이제 대규는 인권과 나란히 걷는다.  
지친 표정의 대규.

**대규**

(주저 앉으며) 야, 좀 쉬었다 가자.

**인권**

난 괜찮아.

노래까지 부르며 가볍게 걸어가는 인권... 완전한 역전!  
분통터져하면서도 주저 앉는 대규.

발이 아파 신발 벗고 양말까지 벗어보면 발에 커다란 물집이 두개나 생겼다.  
설상가상 후두둑 비가 내린다.

### #35. 골목(저녁)

비가 내리는 골목 슈퍼앞, 핸드폰 뺏데리가 다해 공중전화를 거는 대규, 비에 쫄딱 젖었다.

대규

사장님! 사흘만 휴가 더 쓸게요.

사장(F)

그걸 말이라구 해!

대규

저기, 그럼 이틀만요.

사장(F)

내일 출근 안하면 해고야! 알아서 해!

꽝 수화기 놓곤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민박집으로 향하던 대규,  
멈칫 선다.

잠시 비를 맞으며 민박집을 쳐다보다가 그대로 빙글 뒤도는 대규.  
뚜벅뚜벅 민박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 #36. 택시 안(저녁)

국도를 달리는 차.

퍼붓는 비를 바쁘게 와이퍼가 닦아낸다.

최신 트로트 메들리가 흐르고 50대 기사,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부르고 있다.  
조수석의 대규는 무슨 일인지 참을 수 없다는 듯 킁킁거린다.

대규

아저씨 이 테잎 얼마 주구 샀어요?

기사

고속도로에서 샀는데 3천원인가...

대규

(혼잣말로) 크, 도둑놈들. 원가가

550원인데...

기사

아따 무섭게 퍼붓는구만...오늘 안에  
서울가긴 틀려부렸소.

대규의 손에든 테일 케이스, 대규가 불법복제한 그것이다.

**대규**

(낄낄거리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날줄 누가 알았겠냐!

### #37. 민박집 마당(밤)

마당에 비가 내린다.  
뒷마루에 앉아 있는 인권, 대규를 기다리고 있다.  
잔뜩 골이난 표정이다.  
옆에 놓여 있는 랜턴의 불빛이 마당을 향하고...  
불빛이 비추는 빗줄기. 더 굵어진다.

끼익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 #38. 도로/ 택시 안(밤)

쌩하고 택시 앞을 스쳐가는 차.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며 빙그르 회전하는 택시.  
4거리, 택시는 90도 정도 돌아 중앙선과 T자를 이루며 겨우 멈춘다.

**기사**

(지나간 차쪽을 보며) 씨발 놈의 새끼,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대규보며) 다친덴  
없지라. 천만 다행이구만...

**대규**

(마구 화를 내며) 천만 다행은 무슨 천만  
다행이에요? 죽을 뻔 했는데! 아저씨,  
무슨 운전을 이렇게 해요?

**기사**

(기가 막히다) 워메? (파란 신호등  
가리키며) 파란불이어서 난 달린거여. 그  
개새끼가 빨간불인데 지나간거구?

## 대규

지나가긴 뭐가 지나갔다 그래요. (신호등  
보면 어느새 빨간불로 바뀌어 있다)  
빨간불이잖아요! 아저씨가 속도 내구  
달리다 신호 바뀌니까 급브레이크  
밟아놓구! 빗길에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요?

## 기사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  
머...머시라?

### #39. 민박집 마당(밤)

밤이 깊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인권의 얼굴을 비추는 랜턴 불빛.

뒷마루에 서서 랜턴을 마이크 삼아 노래부르는 인권. 제법이다.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마치 뒤로 밴드가 있는 것처럼 앞에 관중들이 있는 것처럼 기타도 치고 헤드뱅잉  
도 하며...

인권, 클라이막스에서 관중석을 향해 마이크를 대는 흥내를 낸다.

마당으로 향한 랜턴 불빛....그 끝...빗속에 서 있는 대규.

O.L.

땀줄 위에 놓인 두개의 대야. 간격을 두고 나란히 뒷마루에 앉은 인권과 대규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족욕중이다.

어색한 침묵 속에 마당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두사람.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다.

인권은 굳은 얼굴로 비만 바라보고 있다.

조금은 무안하고 어색해 괜히 심통을 부리는 대규.

## 대규

피곤이 풀리긴 뭐가 풀려. 더 피곤하다.

(발을 빼 마루로 올리다가 날카로운 뭔가

에 찢린듯)아! (발바닥 보곤) 아이씨!

물집 터졌잖아!

## 인권

(다가와 앉아 대규의 발바닥 보곤) 물집은

어차피 터뜨려야 돼.



대규

그래, 니 팔뚝 굵다(하면서 보면 인권의  
발바닥에는 더 많은 물집이 잡혀 있다)

...내가 졌다.... 좋아! 이제 관두구  
올라가자.

인권

...(다시 졌음을 한다)

대규

내가 졌다구... (진심이다) 올라가면 방학  
끝날때까지는 같이 있어줄게. 그 다음은  
느네 엄마 만나보구 결정하자.

인권

?

대규

너 나하구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이거 하자 그런 거잖아! 작전 성공했어.

인권

(앞만 바라보며) 조까.

대규

허!, 저새끼 또 시작이네. 그럼 뭔데?

인권

...

대규

말해봐...어?...이 힘든 걸 왜 하자  
그랬어? 너두 갯벌 살릴라구? 통일 기원?  
우리 농산물 지키기? 어린이  
인권운동?... (하는데)

인권

(바라) 그럼 소원이 이뤄진단 말야!

대규

?

인권

...(내키지 않는듯) 소원을 빌구 국토종단  
하면 소원이 이뤄진댔어!

대규

(기막힌) 야! 누가 그래?...어?

인권

아이씨...(조금 망설이다 비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한별이형이라구 5학년 형이  
있어....그 형이 국토종단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을 빌었어. 엄마  
낮게 해달라구...형 엄마가 되게  
아팠거든...그리구 작년 여름방학때  
국토종단을 했어. 쫓나게 힘들었대. 죽고  
싶을 만큼... 형 몸이 약해. 키두  
나만하구... 사람들이 안되겠다구  
고만하라구 그러는데두 형은 끝까지  
걸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대규**

(너무나 의외인)

**인권**

얼마 있다가 형 엄마 다 나아서 퇴원했어.

**대규**

(기막힌) 너 교회 다녀?

혹시 느네 엄마 아프니? 그래서 그래?

**인권**

아냐!

**대규**

그럼 뭐야! (한심한) 야, 오줌보! 하는  
짓은 순 꼰통, 깡패같은 애가 그 부분에선  
왜 순진한 척 하나? 그걸 믿어?

**인권**

(그럼 당연하지! 하면서 도전적으로 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면  
소망은 이루어진다!

**대규**

건 또 뭐야?

**인권**

어떤 사람이 그렇겠어.

**대규**

어떤 새끼가? 그 형이?

**인권**

...(말없이 대규를 보며 고개 젓는)

**대규**

(미치겠는) 내가 너보다 한 20년 더  
살았잖아. 응? 그런건 그냥 살기 딱딱한  
사람들 견디구 살라구...관둬라...그래서  
니 소원은 뭔데?

#### 인권

말하면 부정타서 안 이뤄져. (다시 마당의  
비를 바라보며) 소원 다 이뤄지고 나면  
얘기해줄게.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이라도 하는지 얇게 미소 짓는 인권.  
그런 인권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대규.

### #40. 도로(낮)

날이 개어 맑은 하늘. 태양이 내리쬐다.  
땀을 흘리며 힘없이 걷고 있는 대규.  
옆에선 인권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

#### 대규

(한숨 짝 쉬며 마치 타령처럼) 내가  
돌았지. 내가 미쳤지. 내가 약 먹었지.

#### 인권

(델리 스파이스의 '저승탐방기'를  
노래하는) 날 괴롭힐지도 몰라/ 어디서 온  
건지 어디로 데려 갈런지/ 좀 더 근사한  
곳이길/ 하고 바라보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듯 /떨떨 꿈는 유행불도  
꽤 따듯해...

#### 대규

(듣다 못해 버럭) 야! 애면 애답게 동요  
같은 거 불러. 알았어!

#### 인권

(웁찔 하곤 아주 천천히 따분한 표정으로)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모.이.자~(하다가 아주 신나게  
락버전으로)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번엔 꽃밭에서를 락버전으로 빠르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대규

니 똥 굵다. (지친 듯 길 옆에 주저  
앉는다)...야...이리 앉아 봐.

인권

힘들면 천천히 와. 나 먼저 갈게.

대규

일루 와 앉아 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인권

(앉으면)

대규

야, 너 그럼 처음부터 이거 할려구  
온거냐? 나랑 있구 싶어 온 게 아니구?

인권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소원도 이루고  
좋잖아.

대규

그래, 그 소원 말인데...내가 들어 줄게.  
이제 이거 그만두자.

인권

(가당치도 않게 본다)

대규

짜식 정말이야!...내가 들어준다니까!

인권

...

대규

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온지 아냐?  
(배낭에서 지도 꺼내 손으로 가리키며)  
봐. 우리가 오늘루 나홀째지? (종단할  
길을 표시한 붉은 싸인펜 위에 형광  
싸인펜으로 걸은 구간이 표시되어 있다)  
근데 겨우 요거 왔어. (대충 어림잡아  
보며) 10분의 1도 안돼. 근데 (표시했던  
국토종단의 끝, 임진각 가리키며)  
여기까지 언제가? 어? 말이 되냐?

인권

우리 쫓나게 빨리 왔다. 벌써 이만큼이나  
온거야?

**대규**

(질러서 벌렁 뒤로 누우며 다시 타령조로)

내가 돌았지, 내가 미쳤지, 내가 약  
먹었지~

들리는 차소리와 발소리들. 점점 가까워진다.

인권, 돌아보면

국토중단팀이 한줄로 죽 걸어가고 있고 TV촬영차가 그 옆을 따르고 있다.

가슴에 뭐라고 쓰인 같은 티셔츠를 입은 10여명의 청소년들, 머리길이며 모양을  
보니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지는 않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인권.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인권에게 손을 흔든다.

촬영하던 조PD(30대), 학생들이 손 흔드는 쪽으로 카메라를 돌린다.

카메라에 잡힌 인권, 손을 흔들어준다.

조PD도 인권에게 손을 흔든다.

아랑곳하지 않고 누운채 눈감고 있는 대규.

인권, 우리도 이제 가자며 대규를 흔들지만 꼼짝도 않는다.

O.L.

대규를 뒤에서 밀며 가는 인권.

인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짜증한번 내지 않고 달린다.

**인권**

배고프지? 조금만 더 가서 우리 밥 먹자.

뭐 먹구 싶어?

**대규**

에어컨 나오는 술집에서 시원한 맥주.

저 앞으로 아까 만났던 청소년팀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게 보인다.

조PD가 인권을 알아보곤 또다시 손을 흔든다.

대규, 하는 수 없이 제대로 걷고...

조PD가 시원한 음료수를 내밀며 인권을 부른다.

**인권**

(쫓르르 쫓아가 받으며) 고맙습니다. 근데

(촬영차의 기구들 가리키며)이게 뭐하는

거예요?

**조PD**

이 형, 누나들이 임진각까지 국토종단하는  
걸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거야. TV에 나올거야.

**인권**

우리랑 똑같네. 우리두 임진각까지  
갈건데...(인권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려는 대규 보곤) 압...(하다가  
얼른)삼촌!(하면서 대규를 조PD에게  
소개시킨다) 우리 삼촌이에요.

**대규**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한다)

**조PD**

애가 쉽지 않을텐데...삼촌이  
대단하시네요.

**대규**

(겸연쩍게)...아, 네...애가 꼭 하구 싶다  
그래서...

**인권**

(학생의 티셔츠에 써 있는 글씨, '꿈\*은  
이루어진다'를 본다)

**조PD**

넌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되구 싶어?

**인권**

위대한 락커. 내 이름이 뭐개요?  
서.인.권. 울 엄마가 전인권 아저씨처럼  
되라구 지어 준거예요.

**대규**

(미치겠는)

**조PD**

그래? 그럼 노래 한번 해봐.

**인권**

공짜로는 안해요.

**조PD**

허! 쟤데...좋아. 하는 거 보구...

**대규**

(이 앙다문채 나즈막히) 야, 빨리 가자.

**인권**

(못 들은 척... 모자를 벗어선 뒤집어  
조PD앞에 놓는다. 폼 잡곤 노래부르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데)

화난 대규, 그대로 인권의 손을 잡곤 가버린다.  
거의 발이 들린채 달려가다시피하는 인권.  
어? 하는 조PD, 그런 두사람의 모습을 바라본다.  
조PD 발 앞, 인권의 모자가 덩그마니 놓여 있다.

O.L.

인권의 얼굴을 푹 덮는 모자. 대규 것이다.

**대규**

이제 됐지? (씩씩거리며 간다)

**인권**

노래하는 게 어때서?

**대규**

니가 그지야? 길바닥에서 그게 뭐야?

**인권**

길바닥이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음 하는  
거지.

**대규**

(반박할 말이 없다)...그래도 하지마.

**인권**

왜? 아빠두 노래했잖아!

**대규**

이제 안해.

**인권**

왜 안해?

**대규**

그냥 안해. 그러니까 너두 하지 마!

**인권**

서울가서 노래할라구 나두 엄마두  
버렸다며! 근데 왜 안해!

**대규**

!

인권  
(모자를 책 집어 던지곤 돌아서 간다)

대규  
야, 거기 안서!

인권  
(뒤돌아) 가서 노래할 거야! (그대로  
간다)

대규  
(화난) 거기서!

인권  
(그대로 가는)

대규  
(버럭)야!

인권  
(움짤 선다)

대규  
한발짝만 움직여.

인권  
(한발짝 움직이더니 이내 걸어간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대규. 한걸음에 쫓아가 인권의 어깨를 잡아 확 패대기친다.  
쓰러지는 인권, 씩씩거리며 노려본다.  
자기 화를 못이겨 울그락불그락하는 대규.

O.L.

추적추적 부슬비가 내린다.  
비를 맞으며 걷는 대규. 혼자다.  
대규, 옆으로 뺨하고 차가 지나간다.  
도로 저편, 굳은 얼굴로 인권이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도로를 가운데 두고 비를 맞으며 가는 두사람.

#### #41. 골목 가게(저녁)

계산대에 라면 두개를 올려놓는 대규. 돈을 꺼내려는데  
인권이 불쑥 파한뿌리와 계란 두개를 올려놓는다.  
대규, 만원짜리 한 장을 주인에게 주곤 말없이 파와 계란을 저쪽으로 밀친다.



## #42. 민박집 마당(저녁)

마당에 부슬부슬 내리는 바...

뒷마루에 앉아 혼자 후루룩 라면 먹는 대규. 물론 파와 계란은 없다.

대규의 뒤로 방구석, 인권이 벽을 보고 누워 있다.

부러 소리내어 맛있게 먹는 대규.

인권, 배고픔을 참으며 더욱 웅크린다.

울리는 대규의 핸드폰.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고 '발신번호 표시금지'라고 쓰여 있다.

어? 하며 받는 대규.

대규

네. (저쪽에서 아무말이 없다)

여보세요?... (여전히 말이 없다) 전화를  
했으면 어떤 새끼신지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도 말도 없고 끊지도 않자 혹시 싶어  
인권에게 안들리게 이쪽끝으로 가선)

미연이니? 미연이 맞지? 야, 서미연! 니

맘대루 애 낳아놓구...(하는데 뚝  
끊어지는 전화)

대규, 혹시 싶어 처음 전화했던 미연의 번호를 찾아 다시 건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만 들린다.

## #43. 룸살롱 룸(저녁)

커다란 룸안 한쪽에 앉아 있는 미연, 굳은 얼굴로 전원 끈 핸드폰을 들고 있다.

주리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며) 재희언니!

알았어, 알았어. 백설표, 23, 샵, 내가  
실험 해봤는데 진짜 번호 안뜨드라. (미연  
표정 보곤) 벌써 했구나? ... 누군데?

미연

(표정 바꾸며) 야, 우리 나가서 술먹자.

주리

....쪼금있음 민전무팀 온댔잖아.

미연

(아랑곳 없이 나가며) 밖에 아직 두  
비오니?

#### #44. 국도(낮)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햇빛이 째하다.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 인권. 모자는 새모자다.  
여전히 도로를 한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걷는 두사람.  
인권은 차를 마주보고 대규는 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  
굳은 얼굴의 냉랭한 분위기.  
두사람 사이로 차가 썩하고 지나간다.

O.L.

서로 떨어진채 쉬고 있는 두사람.  
여전히 두사람 사이로 차가 썩 지나가고...  
각자 땀을 닦고 물을 마시다 문득 시선이 마주친다.  
얼른 외면하는 두사람.

O.L.

여전히 도로를 가운데 두고 떨어져 걷는 두사람.  
왼쪽으로는 계곡이, 오른쪽으로는 질퍽한 여름산이 서 있다.  
대규의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 대규를 칠 듯 스치고 지나간다.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덤프트럭을 쫓아가는 대규.  
저만치 가는 덤프트럭을 향해 욕을 하다 위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 슬며시 도로  
를 건넌다.  
인권의 뒤에서 걷는 대규.  
아는지 모르는지 인권은 아무 반응 없이 걸기만 한다.

O.L.

햇살에 반짝이는 맑은 계곡물.  
배낭을 부러놓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세수를 하는 두사람.  
계곡엔 드문드문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규, 세수를 하고 일어나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인권의 등을 민다.  
그대로 계곡에 빠지는 인권.  
대규, 메롱하곤 킬킬거린다.  
인권, 어쭙하면서 대규에게 물을 튕기는데 대규, 마구 저쪽으로 도망간다.  
수구를 하며 놀고 있는 수영복 차림 여자들, 맑은 계곡물처럼 1급수다.

씨익 웃는 대규, 도망쳐야되는 것도 잊은 채 여자들 수구하는데 끼어들어 멋지게 토스한다.

그런 대규에게 물을 뿜기며 복수하려는 인권, 물이 목까지 차올라 복수가 쉽지 않다. 그런 인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들과 웃으며 놀고 있는 대규.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는 인권, 물속에서 점프하는 대규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대규를 넘어뜨린다.

여자들 앞에서 물 속에 빠진 대규! 성공이다.

잠깐 허부적대다 곧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대규.

하지만 인권은 발이 미끄러지며 일어서지 못하고 물에 빠진다.

계곡물이 물살은 세지 않지만 경사가 있어 중심을 잃은 인권은 허우적대며 조금씩 내려간다.

놀라 뛰어가는 대규, 인권이 작은 폭포가 있는 곳에 닿기 직전 가까스로 잡아올린다. 대규의 품에 꼬옥 안기는 인권, 숨을 몰아쉰다.

(SLOW)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감기듯 안기는 인권의 감촉, 목을 감싸는 아이의 손... 불에 닿는 아이의 얼굴...

인권도 처음으로 아빠 품에 안긴 그 느낌에 당황하고 있다.

그러다 어? 하는 인권, 보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애가 대규의 배낭 앞쪽에서 뼈죽이 나온 지갑을 슬쩍한다.

인권, 다급히 대규의 등을 두드리고 소매치기를 보곤 뛰어가는 대규.

도망치는 소매치기.

도로를 따라 읍내쪽으로 쫓고 쫓기는 대규와 소매치기.

인권도 저 뒤에서 쫓는다.

한참을 도망가다 소매치기, 지갑을 던지곤 달아난다.

숨을 몰아쉬며 지갑을 줍는 대규, 지갑 속엔 달랑 2만원이 전부다.

## #45. 읍내 365코너(낮)

한손으론 기계를 조작하며 핸드폰 통화하는 대규.

대규

야, 박사, 요새 수질은 좀 좋아졌냐?

박사(F)

형, 지금 뭐하는 거야? 사장이 해고했단

말야.

대규

(낄낄거리며) 재충전할 시간을 가지구

좋지 뭐.

박사(F)

이제 아들 키우면서 살기로 걱정했어?

**대규**

나 강아지새끼, 금붕어, 화초, 그딴 거 안 키우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안 키워. 그건 몰랐지?... 두달치 내 월급이나 받아서 부처라.

화면에 잔액이 20,560 이라고 표시된다.  
에이씨 하며 기계를 내리치는 대규.

#### **#46. 음반점(낮)**

테이블 카운터에 올려놓는 인권.

**인권**

이거 부활 새로 나온 앨범 맞죠?

**주인**

응. 선물할 거야? 포장해줘?

**인권**

아뇨. 그냥 주세요.

**주인**

돈은?

**인권**

삼촌이 올거예요.

카운터 옆에 서서 창밖을 보는 인권.

길 건너 365코너에 사람들이 두세명씩 줄을 서 있다.

아빠가 저기에서 금방 올거라는 의미로 주인에게 미소를 띄운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는 인권. 줄이 줄어들고 몇사람 없는데...?...대규가 없다.

유리창에 붙어서서 365코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인권.

정말로 없다.

건너오는 사람중에도 없고 거리에도 없다.

기다리는 주인에게 어색한 미소를 짓는 인권,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한순간 테이블 카운터 위에 놓은채 그대로 뛰어 나간다.

#### **#47. 거리(낮)**

두리번거리며 아빠!를 외치는 인권.  
고개를 숙였다가 까치발을 뛰었다 하며 지나가는 택시와 버스도 살피고...  
하얗게 질려서 아빠!를 외치며 뛰어다닌다.  
그런 인권을 음반점 옆쪽 다른 365코너 앞에서 보고 있는 대규.  
대규를 발견한 인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소리로 아빠!하며 뛰어간다.  
사람들이 모두다 쳐다본다.  
대규 앞에 와서야 아차하며 멈칫 서는 인권.  
대규와 인권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인권,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꼭 숙인다.

### 대규(OFF)

(통명스럽게)왜?

### 인권

(고개 숙인채 눈을 뜨며 미소띤 얼굴로)

배고파.

## #48. 분식집(낮)

나란히 들어서는 대규와 인권.

### 인권

(호기롭게) 김밥 네줄이요. 오이는 넣지

마세요!

## #49. 몽따쥬

도로, 낮.

크기가 다른 두개의 그림자가 일렬로 움직인다.

인권 뒤에서 걸어가는 대규. 검게 그을린 두사람의 얼굴에 땀이 흐른다.

밝은 얼굴의 인권과 달리 대규는 힘없이 터덜터덜 걷고 있다.

지나가는 차안의 여자들이 서행하며 쳐다본다.

내자리는 저긴데 하면서 힘없이 손을 흔들어주는 대규.

민박집 외경, 밤.

불밝힌 창 안으로 옆방 여대생들에 끼어 놓고 있는 대규가 보인다.

중앙엔 맥주와 안주가 있고 대규, 무슨 게임을 했는지 여대생의 손목을 잡고 세계 때리는척 하다가 살살 때린다.

벌칙 방문이 열리고 잠에서 막 깬 얼굴의 인권이, 아빠! 오줌! 한다.

경악하는 여대생들, 일제히 대규를 쳐다본다.  
수습이 안되는 대규, 어쩔줄 몰라하는데 인권은 몰래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도로, 낮.

대자로 누워 쉬고 있는 대규. 얼굴에 나뭇잎이 무늬를 만들었다.  
무늬가 사라지며 그늘이 드리운다.  
대규의 머리맡에 선 인권. 손가락을 꺾으며 하나, 둘, 셋을 한다.  
열을 센 후에도 일어나지 않는 대규.  
인권이 팔목을 푹 물어버리자 악! 일어나는 대규.

한쪽의 그림같은 시골길을 걸어가는 두사람의 뒷모습.  
오른발, 왼발의 스텝이 같은 박자로 뻗는데 오른쪽 발이 약간 밖으로 나가는 언밸런스한 팔자 걸음걸이가 똑같다.  
그렇게 썩크로나이즈하듯 경쾌하게 걸어가는 두사람.  
두사람의 그림자가 사이좋게 나란히 흔들리다 점점 멀어진다.

## #50. 민박집 마당(밤)

빨래를 널고 있는 대규.  
대규의 뒤, 평상엔 주인집 할머니와 만삭의 며느리, 7살쯤된 예쁘장하게 생긴 손녀, 그리고 인권이 둘러 앉아 수박을 먹고 있다.  
여자아이와 동시에 수박에 손을 갖다댄 인권,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꼴이 되었다.  
화들짝 놀라 얼른 손을 비키는 인권.

**할머니**

총각두 와서 어서 들우.

**대규**

네. (뒤돌며) 아저씨는 안오세요?

쑥스러워 얼굴이 벌개진 인권에게 수박을 내미는 여자아이.

**할머니**

서울 갔수. 뉘어나 되야 올거유.

인권, 차마 여자아이가 내민 수박을 집지 못하고 다른 수박을 집는다.  
그런 인권을 보곤 피식 웃는 대규.

## #51. 방안(밤)

방바닥에 길게 늘어진 열댓개의 실이 가지런하게 누워 있다.  
실을 따라 카메라 올라가면 네개의 발바닥 물집마다 실이 꿰어있다.  
천장을 향해 나란히 누워 있는 대규와 인권.

**대규**

니가 진짜 내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야.

**인권**

....

**대규**

넌 그 여자애한테 평생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거라구.

**인권**

...(자책하는)

**대규**

방법은 딱 하나야. 널 아침에 니 물건  
중에서 뭐든지 하나 선물로 줘.

**인권**

...씨발, 내가 알게 뭐야(돌아눕는)

O.L.

가지런했던 실이 마구 헝클어져 있다.  
깊은 밤, 서로 팔과 다리 걸친채 자고 있는 두사람.  
문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OFF)**

이보슈, 총각!

## #52. 국도/ 봉고차 안(밤)

상향등과 비상감빡이를 켜채 달리는 차.  
대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지판.  
이런 지랄맞은 일에 왜 엮이나 하는 얼굴로 운전하는 대규.  
조수석의 인권이 걱정스런 얼굴로 뒤돌아 보면  
뒷좌석에 탈진해 쓰러져 있는 만삭의 며느리.

**산부인과 의사(V.O.)**

양수도 터졌구 애가 거꾸로 있어서 여기선

안되요. 큰병원으로 가세요.

### #53. 대전의 종합병원 복도(새벽)

분만실 앞에 앉아 있는 대규. 졸지에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초조한지 손을 가만히 있질 못한다.

문이 열리고 막 태어난 아기를 대규에게 건네는 간호사.

나 아니예요 하는데도 엉겁결에 받게 되는 아기.

어설피게 아기를 안는 대규. 내 아이가 아닌데도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안고 있는 가슴엔 생경하면서도 뜨거운 뭔가가 올라온다.

대규

흐흐...되게 못생겼다...외계인 같애.

그런 대규의 뒤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인권. 갑자기 맥없이 쓰러진다.

(천천히 WHITE OUT)

### #54. 동 진찰실(낮)

애기가 잘 안들려 못알아들은 것 같은 대규의 얼굴.

대규

제목이 뭐라구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50대 대머리 의사(의사1). 선뜻 말을 하지 못한다.

대규

(귀를 후비며) 잘 안들려요. 크게 좀 얘기해보세요.

의사1

...(결심한 듯) 신경모세포종이라구 4대 소아암종의 하납니다.

대규

(이제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의사1

(뷰박스에 걸린 요추, 골반뼈가 보이는



인권의 허리부분 CT, MRI사진들을  
가리키며) 여기 골반 교감신경절에서  
발생했는데 이미 주변에 이렇게 많이  
퍼져서 4기에 해당...(그 다음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명한 대규의 시선으로 보이는 장면.

의사,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조명을 받은 대머  
리만 번들거린다.

코믹한 무성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대규, 히죽 웃는다.

대규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안 의사, 설명을 멈추곤 대규를 응시한다.

말없이 보는 대규. 마치 눈싸움을 하듯 서로를 잠시 쳐다보는 두사람.

의사가 먼저 눈을 깜빡인다.

**대규**

(낄낄) 이겼다.

**의사1**

(대규의 정신상태를 짐작하곤) 보호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제가  
연락해 놓을테니까 서울 삼성병원의  
최성수박사를...

**대규**

(반갑게) 나 보호자 아는데...나  
아니예요.

**의사1**

(이해는 하지만 약간 짜증나는)

**대규**

진짜예요...난 뭐냐? 인질...협박에  
어쩔수 없이 끌려온 인질이에요, 인질...

**의사1**

아버지라면서요?

**대규**

누가 그래요? 그 대목두 아직 명확한 증거  
없어요. 일방적으로 개가...

**의사1**

(버럭)이 봐요!

**대규**

(네? 하듯 멀뚱하게 쳐다보면)

**의사1**

(미치고 환장하겠는)

**대규**

(찬찬히 설명하는) 얼마전에 어떤  
꼬마놈이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다짜고짜  
날더러 ...아빠래요. 징그럽구 끄찍했죠.  
생각해보세요. 이 나이에 아홉살짜리  
아빠라니요. 그 찌드기 같은 놈  
떼버릴라구 개뻥따구같은 국토종단인가  
뭔가를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진짜루요. (헛웃음을 웃곤 의사에게 얼굴  
갖다대며) 웃기죠? 안 웃겨요? 이걸  
완전히 웃기는 짜장면이잖아요!...짜장면  
먹구 싶네...낄낄낄...

**의사1**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여야 그나마 수술도...

**대규**

(벌떡 일어나며) 난 못해요. 뭐라구  
그래요? 야, 너 죽을병 걸렸대  
그래요?...9살밖에 안된 놈한테 뭐라구  
설명하냐구! (서성이며) 너 오줌을  
왜그렇게 자주 썼는지 아냐? 오줌보 옆에  
암이 창궐해서래. 너 암 알아? 그것두  
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그건 말야.  
죽을 만큼 아픈 치료를 해야 한단 뜻이구  
그렇게 한대두 나을 보장두 없다는 거야.  
죽을수도 있다는 거지. 9년두 채 안된  
인생 (주먹으로 벽을 치며) 종치는  
거라구!

**의사1**

...얘기 안해두 되요.

**대규**

(멈칫하곤 뒤돌아 의사를 본다)?

### #55. 동 병원 복도(낮)

열린 병실 문 사이로 보이는 인권, 간호사와 웃으며 얘기하고 있다.  
환자복이 인권의 몸에 비해 너무 크다.

#### 의사1(V.0.)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데...

너무나 기막힌 대규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다.

### #56. 대전 시내 거리(낮)

오후의 햇빛이 따가운 거리.  
보도블럭의 선을 밟지 않고 걸으려고 무지하게 애쓰며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대규.

#### 의사1(V.0.)

얼마전에 원장님이 학교 선생님하구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길루 고아원을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과 부딪치는 대규.  
부딪친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인상찌도 여전히 보도블럭에만 신경쓰며 걷는 대규, 피식피식 웃는다.  
미친놈 쳐다보듯 쳐다보는 사람들.

#### 의사1(V.0.)

7살때 엄마가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서 1년  
있다 데리러 온다구 그래놓군 안  
왔답니다.

어떤 남자와 부딪쳐 휘청하는 대규, 그 바람에 보도블럭의 선을 밟았다.  
선 밟은 자신의 발을 보며 마구 질질대는데 울리는 핸드폰.

#### 대규

(질질거리는 걸 멈추지 못한채) 네.

#### 여자2(F)

오빠, 대체 어떻게 된거야? 전화두

안하구? 전화해두 잘 안되던데?...

**대규**

(낄낄거리며) 미안미안.

**여자2(F)**

그동안 뭐했어?

**대규**

그동안?...그동안...(미친놈처럼 마구 웃어댄다)

### #57. 대전 시내 술집(밤)

한쪽으론 바가 있는 카페분위기의 술집.

화장실 갔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대규. 많이 취해 휘청거린다.

화장실 앞 어느 테이블에 부딪치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이 계속 가는 대규.

대규가 부딪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명의 남자들...중 조PD가 있다.

대규를 보고 어? 하는 조PD. 낮은 익은데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물론 대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동료1**

야, 2차가자. 내가 죽이는 데 알아놨어.

**조PD**

(그런가 보다 하곤 고개돌리며) 좀 봐줘라. 나 내일 새벽부터 또 땡벌에 나가야되잖아.

**동료2**

우리는 뭐 출근 안하냐? 아직 10시밖에 안됐어.

**조PD**

정말 안돼. 내가 취해서 빌빌거리면 애들이 뭐라그러겠냐?

**동료1**

1년만에 만났는데...

**조PD**

(잔들며) 완샷하구 일어나자. 느네 서울 오면 그땐 죽여줄게.

아쉽지만 건배하고 마시는 조PD와 동료들.

바에 앉는 대규, 많이 취해 한번에 제대로 앉지 못하고...겨우 앉는다.

**대규**

(술을 마시곤 혀 꼬부라진 소리로  
바텐더에게)누구 차례지? 난가?

저 뒤로 조PD와 동료들이 일어나는게 보인다.

**바텐더(여,20대)**

그럼 해요! 이!

**대규**

이...이...이슬처럼 맑고 아름다운  
경미씨!

**바텐더**

(좋아하며) 대!

**대규**

대규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한 동료가 계산하고 다른 동료와 나가려던 조PD, 대규를 다시한번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

**바텐더**

규

**대규**

규....규칙 아니고...규...

**바텐더**

졌어요, 졌어.

**대규**

잠깐 있어봐. 지금 막 생각날라 그랬단  
말야. 규...

**바텐더**

(대규의 손목 때릴 자세 취하며) 빨리  
내요.

**조PD(OFF)**

안녕하세요! 하마터면 못알아볼뻔 했어요.

**대규**

(고개 들어 보지만 못알아 보겠다. 그래도  
그냥 아는 척하는) 앉으세요. 같이

할래요?

**조PD**

(그대로 서서) 인권인 잘 있죠? 그때  
인권이 노래 정말 듣고 싶었는데...

**대규**

(히죽 웃는다)

**조PD**

인권이 모자 제가 갖고 있거든요? (명함  
꺼내 건네며) 연락주시면...(하는데 펍  
날아오는 대규의 주먹)

쓰러지는 조PD. 놀라 소리지르는 여자.

쓰러진 조PD의 멱살을 잡고 다짜고짜 다시 주먹을 날리는 대규, 눈이 확 돌아다.

줄지에 당한 조PD, 코피가 흐른다.

다시 공격해오는 대규.

조PD, 얼른 대규의 공격을 피하고 휘청하는 대규를 한대쳐 바닥에 쓰러뜨린다.

씩씩거리며 대규를 쳐다보는 조PD, 한대 더 치려다가 별 미친 놈 다 보겠다 투  
로 보곤 나간다.

그런 조PD의 발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대규.

그대로 엉겨붙는 대규와 조PD, 실내를 엉망으로 만든다. 개싸움 하는 두사람.

대규, 조PD를 깔아뭉개곤 마구 주먹을 날린다.

**대규**

날 속여? 어?... 쪼그만 새끼가 날 갖고  
놀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한번  
엇먹어보라 이거야!

여자가 대규를 뜯어말린다.

대규, 문득 여자를 보곤 느닷없이 멱살을 잡으며

**대규**

야, 이 기집애야, 애를 낳지 말던지,  
낳았으면 끝까지 길러야 될 거 아냐!  
(여자를 때대기친다)

일어난 조PD, 기막혀 대규의 뒷덜미를 잡아 채 한대 날리며

**조PD**

야, 이 미친놈아!

휘청하는 대규 앞으로 우루루 몰려든 조PD의 동료들과 다른 남자들...  
대규, 그런 사람들을 밀쳐내곤 악!악! 소리지르며 날뛴다. 술병과 의자를 집어던  
지고 테이블을 갈아엎고...아수라장이 되는 실내.

FO.FI.

### #58. 경찰서 유치장(새벽)

영망이 된 얼굴로 웅크린채 누워 있는 대규.  
날이 밝는다.

### #59. 경찰서 앞 거리 공중전화부스(아침)

핸드폰에 찍힌 미연의 번호보며 천천히 전화하는 대규.  
신호가 가고...그러나 결번이라는 기계음만 들리다.  
화를 삭이며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대규.

### #60. 병원 진찰실(낮)

각종 검사기록사진들과 소견서 등을 대봉투에 넣는 의사, 대규에게 내민다.

#### 의사1

치료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 대규

본인의 의지를 무시하구 새끼줄루 끄끄  
뒹어서 병원에 처넣을 겁니다. 나두  
복수해야죠. 존속사기...이거 큰 죄  
아닙니까?...낄낄...

#### 의사1

무엇보다 아빠의 감정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니까 힘들더라도 씩씩하고 밝게  
아이를 대하세요.

#### 대규

(이렇게요? 하듯이 입꼬리만 올려 웃는다)

## #61. 병실 (낮)

대규, 그렇게 입꼬리만 올린 이상한 표정으로 문을 열면 인권은 없다.  
비어 있는 병실. 한쪽에 대규의 커다란 배낭이 놓여 있고...

대규, 침대 끝에 걸터앉아 마른 손세수를 하는데

**인권(OFF)**

아빠!

반갑게 들어오는 인권, 배낭에 모자도 썼다.

**인권**

이제 퇴원해두 돼. 의사선생님이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대.

**대규**

(기막힌) 그래?

**인권**

어젯밤에 할머니가 우리 물건 다 갖다  
줬어. 바로 출발할 수...(보면 피딱지가  
얇은 입술, 찢어진 이마...얼굴이 말이  
아니다. 상처 만지며) 어, 아빠, 왜이래?  
어떤 새끼가...

대규, 인권의 손을 차갑게 치운다. 대규의 서슬에 멈칫하는 인권.

**대규**

(씨익 웃으며) 의사가 나한테 다 붙었어.

**인권**

(쿵! 절망하며 고개 숙인다)

**대규**

(냉정하고 씨니컬하게)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넌 아주 몹쓸병에 걸렸구 얼른  
치료해야 돼. 물론 치료한다고 해서  
낮는다는 보장두 없구...

**인권**

(혼잣말로) 의리없는 새끼...

**대규**

서울에 니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가



있대.(자신의 배낭 들곤 나가며)  
퇴원수속할테니까 로비루 나와.

**인권**

(뒤따라 가며) 저기...

**대규**

(광 문닫고 나간다)

## #62. 인천 거리(낮)

지하철 역 앞에서 홍보찌라시 나눠주며 핸드폰 어깨에 걸고 통화하는 박사. 사람들, 찌라시를 거부하거나 받은 자리에서 바로 버린다.

**박사**

강형사 그새끼가 전화한거야. 5분 후에  
들이닥친다구...새끼, 좀 일찍 연락이나  
주지. 돈 쳐먹을땐 언제구...겨우 몸만  
빠져나왔어. 사장은 중국으로 튀구...

INTERCUT, 병원 로비,

백만원이 조금 넘는 병원비 계산서를 들고 현금입출기 기계조작하며 통화하는

**대규**

내 월급은?

**박사**

땡이지, 뭘 물어봐 이 마당에...

병원로비, 입출기 화면에 뜨는 잔금액수, 9,850이다.

**대규**

...너 내 방 알지? 얼른 방 빼서 돈 좀  
부쳐. 짐은 니 방에 좀 갖다  
놓구...그리구 그때 그 번호 맞았어. 근데  
바꾼 거 같애. 결번이래. 다시 번호좀  
알아봐주라. 그리구 아예 그 핸드폰  
위치추적해서...

**박사**

위치추적 하든 뭐해? 얼굴도

모르는데?... 뭐? 잠깐만  
있어봐...(지나가는 여자에게) 저기  
미안하지만 펜 있으면(하는데 여자,  
홍보찌라시 나눠주려는 걸로 알고 차갑게  
지나간다)아이씨...(홍보 찌라시 한쪽  
구석에 놓곤 다시 다른 여자에게) 펜  
있으면 하나만 좀 빌려 주실래요?  
(대학생처럼 보이는 예쁘게 생긴 여자,  
가방에서 펜 내밀면 작업하듯 웃으며)  
땡큐, 잠깐만요.(핸드폰에 대고) 불러  
봐.(홍보 찌라시 한 귀퉁이에 핸드폰  
번호와 이름 등을 적으며 눈으론 연신  
여자에게 미소를 띄우는데 여자,  
홍보찌라시 뭉치 보곤 그냥 간다) 저기  
잠깐만요! (그대로 가는  
여자...통명스럽게 핸드폰에 대고) 그래서  
어쩌라구?

**대규**

지금 당장 가.

**박사**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대규**

(현금서비스 버튼 누르며) 이 일 못해내면  
너 죽을 줄 알아!

**박사**

(기가 막히다)

### #63. 병실(낮)

신생아를 보고 있는 인권.

침대에 앉아 있는 민박집 며느리 옆으로 남편이 신생아를 안고 있고 할머니와 손  
녀딸이 모두들 신생아를 보며 웃고 얼르고 얘기하고 있다.

**인권**

(꾸벅 인사하며)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가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속 여자아이,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여자아이를 외면하며 나가는 인권.  
인권이 나가고 다시 신생아를 둘러싸는 식구들.  
이쪽 의자 구석에 대규의 장난감이 덩그마니 놓여 있다.

#### #64. 병원 앞 마당/택시 안(낮)

택시 승강장 앞 철제 바에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는 대규와 인권.

인권

(대규의 눈치보며) 저기, (사람들 앞이라)  
삼촌! 국토종단만 끝나면 바로  
치료받을게.

대규

(기막힌 듯 쳐다보다 관둔다)

인권

다신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잖아....

대규

...

인권

이대루 서울가면 내내 병원에서  
지낼텐데...

차례가 된 대규와 인권.  
택시가 앞에 와 선다.  
물끄러미 택시를 바라만 볼뿐 타지 않는 대규.  
뒷사람이 그런 대규를 쳐다보다 먼저 오른다.

인권

(대규의 맘이 흔들렸다 생각하고) 우리  
약속했잖아. 남자대 남자루...응? 이것만  
끝내구 나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다시 택시가 한대 와 서고...  
인권, 대규에게 그럼 동의한거다? 하는 표정으로 뒷좌석에 오른다.  
하는 수 없다는 듯 조수석에 오르는 대규.

택시안,

인권

(환한 얼굴로 기사에게) 강경에서 23번  
국도로 조금만 아래루 내려가면  
교동이라구 있거든요?

대규

(기사에게) 시내요.

인권

?

대규

(인권에게 입꼬리만 올려 씨익 웃는다)

### #65. 갈비집(낮)

종업원에게 주문하는 대규.

대규

(메뉴판 보며) 생등심 2인분하구  
양념갈비2인분, 부채살두 있죠? 그거  
2인분하고 차돌백이 2인분, 안창살 2인분,  
또 뭐가 맛있드라...

놀라는 종업원.

인권은 맞은편에 뚱하고 앉아 있다.

O.L.

대규,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 몇침을 동시에 집어 맛있게 아구아구 먹다 보면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채 팔짱끼고 앉아 있는 인권.

대규

고아원에서 고기 한번 제대루 못 먹었을  
거 아냐? 얼른 먹어.

인권

...

대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깜쪽같이 나  
속일려구? 이제 입원하면 이런거 먹고

싶어도 다시 못먹어 (손에 포크 쥐어주곤  
억지로 웃으며) 좋은 말로 할때 처  
드세요!

인권

...

대규

(이갈며 웃는) 밥을 든든히 먹어야 걸을  
거 아닙니까? 네?

인권

...정말 밥만 먹고 갈거지?

대규

(고개 끄덕)

인권

(하는 수 없이 포크 낚아채선 고기 한점  
찍어 먹곤 통통거리는) 별 맛도 없네.  
엄마가 해준게 훨씬 맛있어.

대규

(기막힌) 고아원에 갖다 버린 엄마가  
그렇게 좋으세요?

인권

아빠보다 낫지 뭐.

대규

허! 그래! 내가 너한테 아빠기나 하나?

인권

...

대규

너 나한테 왜 왔냐? 어? 감쪽같이 속여서  
아픈애 데리구... 뭐? 엄마한테 편지를  
써놓구 와?

인권

정말루 다 얘기했음 국토종단 안 했을 거  
아냐.

대규

거봐!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온 거잖아!

인권

(열받아) 그래! 나 아빠 내내 미워했어!  
나타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랬어.

이제 됐어?

대규

!!

인권

...엄마가 그랬어. 반드시 온다고...

엄마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대규

...네. 아빠는 참 싸가지 없는 놈이고

엄만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 #66. 서울, 윤정의 아파트 거실 (낮)

INSERT, 사진

고등학교 시절, 축제 끝에 찍은 공연 기념사진. 대규, 선아를 중심으로 다른 밴드 구성원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앨범에서 사진을 떼는 윤정. 박사에게 건넨다.

놀랍고 신기한 듯 사진을 보는 박사.

대규(V.O.)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67. 패밀리 레스토랑(일몰)

고깔모자를 쓴 대규가 신나게 박수치며 빠른 템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그런 대규를 외면하고 있는 인권.

두사람 사이엔 케익이 놓여 있고 양초 한개가 꽂혀있다.

대규

촛불 꺼야지.

인권

...(원망어린 시선으로 보다가 후 촛불을

끈다)

대규,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박수를 치곤 바로 또하나의 양초를 쬐는다.

두개의 양초에 불을 붙이는 대규.

O.L.

세개의 촛불.

박수치며 노래부르는 대규.

**대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O.L.

단번에 다섯 개의 촛불을 끄는 인권, 화가 많이 났다.

O.L.

6개의 촛불 앞에서 박수치며 노래부르는 대규.

**대규**

인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촛불 끄지 않고 대규를 노려보는 인권.

**대규**

(왜 안끄냐는 얼굴로 쳐다보면)

**인권**

(벌떡 일어나며) 이게 뭐하는 거야! 나

안해!

**대규**

얏어! 너 아흠 살이니까 아직 세번 더

남았어. 두 번인가? (낄낄) 너 생일

언제야? 지났어? 안지났어?

그대로 나가는 인권.

동작 그대로 멈춘채 움직이지 않는 대규.

정적이 흐른다. 소리없이 타오르는 여섯 개의 촛불.

대규도 뒤따라 일어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케익을 들어 인권을 향해 던진다.

**대규**

싸가지 없는 아빠놈이 그동안 못한

아빠노릇 좀 할라그런다. 왜?

인권의 발 아래 뭉개지는 케익. 사람들이 쳐다본다.

**인권**

(뒤돌아)누가 이런거 해달래? 밥만 먹구  
다시 가기루 했잖아. 이게 뭐야? 안그래두  
병원에서 시간 다 까먹었는데.

**대규**

거짓말에 한 번 넘어갔다구 이게 날 완전  
호구로 보네. 내가 미쳤어? 널 데리구  
다시 그 짓을 하게!

**인권**

그럼 나혼자서라도 할거야!

**대규**

죽을라구 환장했냐?

**인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준단 말야!

**대규**

하나님이 어딴어? 그런 거 없어!

**인권**

(절대로 동의할수 없다는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본다)

**대규**

니 소원...(미치겠다)... 그게  
국토종단한다구 이뤄질 것 같애! 이  
멍청한 놈아!

**인권**

(양다문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똑바로  
쳐다보는 성난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방울  
떨어진다)

**대규**

(곤혹스러워 시선을 외면한다)

## #68. 국도(낮)

10미터쯤 간격을 두고 앞쪽에 서 있는 대규와 뒤에 서 있는 인권.  
지난번 끝난 지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대규

여기라니까

인권

여기야.

대규

죽어두 여기야. 이걸 양보 못해.

인권

우길걸 우겨! 저 나무... 내가 저 나무  
기억하자구 그때 그랬잖아.

대규

좋아 그럼, 너두 반 와. 나두 반  
갈테니까...더이상은 안돼.

인권

만약에 거기서 출발해서 국토종단  
끝냈는데 소원 안 이루어지면 그건 아빠  
책임이다.

대규

(항복하는 패잔병처럼 두손 들고  
인권쪽으로 내려온다)

O.L.

양 옆으로 눈발이 펼쳐진 도로,  
나란히 걸어가는 대규와 인권.

대규

야, 너 그 소원 이뤘다는 형 전화번호좀  
대봐.

인권

...

대규

나두 확인 좀 해보게. 응?

인권

...

대규

야, 그러지 말고 직접 통화하자. 너의 그  
하나님 핸드폰 번호가 뭐냐?

인권

...

**대규**

(하늘 보며) 핸드폰 번호도 안가르쳐주디?

**인권**

...

**대규**

거봐. 니 소원 들어줄거면 왜 안가르쳐주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전화 받고 싶어서라도 가르쳐주지. 나중에 니 향의 전화 받기 싫으니까...

**인권**

(한심하게 대규를 한번 쳐다보곤 걸음을 빨리한다)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부자를 보고 손을 흔든다.  
대규, 농부에게 손을 흔들며 자조적으로 낄낄거린다.

### #69. 휴게소 슈퍼(낮)

캔맥주와 안주등을 비닐에 담고 있는 대규.

**직원**

(카드를 조작해보곤 카드 내밀며)  
한도초관데요.

**대규**

(한숨 쉬곤) 나 사자성어에 약한데...삼행시는 자신 있는데?

**직원**

(기막히다는 표정)

**대규**

알았어요. 사면초가.

### #70. 심부름센터(낮)

그리 넓지 않은 지저분한 사무실.  
박사, 한때 근무했던 때문인지 자기 사무실처럼 돌아다니며 통화한다.

박사

핸드폰을 새로 안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면 안나오지.

대규(F)

그럼 어떡해?

박사

이제 끝이지, 뭐. 주민등록번호하구  
사진하나루 어떻게 찾아? (사진을 집어  
보며) 뺏자 만드는 오대규가 한때  
락커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젊음과  
저항의 락커! 근데 왜 관뒀어? 계속했으면  
누가 알아? 윤도현처럼 됐을지...(대규가  
소리를 지르는지 전화기 잠깐 귀에서  
떼었다가) 형순 이쁘다. 형 그때두 봉투만  
던졌지? 안 봐두 뻔하지 뭐. 한번 된통  
걸릴 줄 알았다. 형수가 한번  
엿먹어보라구 애 보내곤...(전화  
끊어진다)

## #71. 국도변 휴게소 앞(낮)

핸드폰 파라솔 테이블에 던지는 대규, 캔맥주 새로 하나 따서 마신다.  
테이블 위엔 다 마신 캔맥주와 안주, 비닐속 아직 꺼내지 않은 맥주가 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권, 대규 앞으로 오면

대규

앉어!

인권

빨리 가자.

대규

(캔 죽 들이키곤) 앉아 봐. 할 얘기 있어.

인권

가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앞서 간다)

대규

야! 야!

그대로 걸어가는 인권의 뒷모습.

대규, 배낭 매고 캔맥주와 비닐들곤 쫓아가는데 울리는 핸드폰.

**대규**

(박사라고 생각하고 받으며) 왜?

**아버지(F)**

대규냐?

**대규**

(굳는다)

**INTERCUT**, 강원도 춘천, 도로가의 공중전화부스.

대규부가 수화기를 든채 머뭇거리고 있다.

허름한 옷차림, 술에 절은 모습, 한때는 강박하고 권위적이었을...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지친 50대 후반의 시골아저씨다.

공중전화 부스 뒤로 세워져 있는 용달 트럭 짐칸엔 망에 든 양파가 가득하다.

**아버지**

...나다.

**대규**

.....

**아버지**

잘... 있지? 아픈덴 없구?... 혹시 너  
나오나 하구 암만 테레비 봐두 안  
나오대...여기 춘천이야....일 나왔다가  
..니가 베이슨가 그거냐 리던가 그거냐?  
또 뭐래드라... 하여튼 종류두 많구  
뭐가뭔지 알아야지.... 그리구 그때 니가  
모아논 돈 보다 훨씬 비싸드라, 야. 암만  
갓다 쓴 놈이 지난 세월 이자쳐서 갚는다  
그래두...이건 3부이자 택이야...하여튼  
비싸기도 비싸고... 바가지 쓰는건지도  
몰르겠고...그래서 못 샀는데...

**대규**

(핸드폰을 내리며 하늘을

본다....캔맥주를 마시려는데 몇방울  
나오다 만다. 강통을 바닥에 버리곤 발로  
밟는다. 폴더를 닫아버린다)

## #72. 촌천의 도로/트럭안 (낮)

수화기를 내려놓곤 부스에서 나오는 대규부, 잠시 하늘 한번 바라보곤 별 표정변화 없이 트럭에 오른다.

시동을 거는 대규부....그 옆 조수석에 세워져 있는 두 대의 전자기타.

리드기타와 베이스기타...뭐일지 몰라 둘다 샀던 아버지...

트럭이 출발한다.

## #73. 국도(낮)

저 앞으로 걸어가는 인권, 노래를 부른다.

크래쉬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5미터쯤 뒤에서 발로 밟은 깡통 걸어차며 걸어가는 대규, 손에는 새맥주가 들려 있다.

### 대규

들이 찼냐? 나 들게 만들기루...올해

토정비결 좋았는데...

대규, 한번씩 발로 찰때마다 '용이 뭐를 만나 어디로 올라가는 격이니, 동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만사 형통하고'...그렇게 올해 토정비결을 중얼중얼거린다.

대규가 찬 맥주캔이 인권 옆으로 가기도 하지만

인권은 뒤편 안 쳐다보고 앞으로 걷기만 한다.

O.L.

그렇게 걸어가는 인권의 뒤에서 나는 클랙션 소리.

옆을 지나던 차도 뽕뽕 클랙션을 누르며 간다.

뒤돌아보면 저 뒤로 노란 중앙선을 밟으며 지그재그로 걸어오는 대규.

### 인권

(놀라) 아빠!

지나는 차 운전자들이 씨발, 야, 이 미친놈아! 너 죽을라구 환장했어? 등등 소리 지른다.

대규, 아무 대꾸도 없이 정말 죽을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위험천만하게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왔다갔다한다.

보다 못한 인권이 차도로 뛰어든다.

아슬아슬 자동차를 피해 대규를 겨우 끌고 길가로 나오는 인권.

풀섶에 대규를 떠민다.  
바닥에 대자로 눕는 대규.  
하늘을 바라본다. 눈을 감는다.

O.L.

잠을 깨는 대규,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대규 옆에 앉아서 속상한 얼굴로 풀들을 뜯고 있는 인권.

#### #74. 민박집 마당(밤)

주인아줌마(40대 후반)의 손에 놓인 만원짜리 한장과 천원짜리 세장.  
대규, 여기저기 호주머니 뒤져 동전들을 꺼내 그 위에 얹으며

**대규**

카드 계산기 한대 놓으세요. 그거 얼마  
안해요.(동전두 끝이다)

**주인아줌마**

(돈 도로 대규의 손에 쥐어주며) 읊내  
가면 365 그거 있으니까 찾아오슈...

**대규**

(다시 아줌마의 손에 돈 쥐어주며)  
거기까지 언제 갔다와요? 지금 발에 물집  
잡혀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걸어왔단 말예요.

**주인아줌마**

총각두 그럼 국토종단인가 그거 하는거유?  
우리 아들두 그거 한다구 떠났는데...우리  
아들 서울서 대학다니거든...

**대규**

(아줌마의 입술에 손가락 대며) 헛,  
처녀한테 어떻게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주인아줌마**

(대규 때리며 웃는) 어이구...처녀 소리에  
넘어갈까봐? 소녀라 그래두 이걸론 안돼.  
(돈 대규에게 도로 내민다)

## #75. 기차역 대합실(밤)

비교적 한가한 대합실.

긴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씩 차지하고 배낭을 배고 누워 있는 대규와 인권.

이렇게 잘 태세다.

모기가 물었는지 탁 자신의 다리를 때리며 일어나는 인권, 이게 뭐야! 신경질을 내며 얼른 침을 바르고...두드리고...

그럼에도 대규는 자는지 꿈쩍도 않는다.

역 안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 들리더니 우루루 한무리의 대학생들이 몰려 나온다. 같은 모양의 티셔츠에 기타를 맨 사람도 있고 컵라면박스, 소주박스들을 옮기는 사람도 있는게 과 엠티온 대학생들인가보다.

웅성웅성 모여 인원점검을 하는 학생들.

인권은 주변을 뒹뒹거리는 모기를 쫓는다.

인원점검을 마친 대학생들이 우루루 밖으로 나가고...

다시 조용해진 실내.

인권, 다시 잠을 청하려 누워본다.

잠시후 우당탕 다시 들어오는 학생들, 비를 맞았다.

열린 문으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비가 보인다.

얼마 안있어 거센 빗줄기로 변하더니 엄청나게 쏟아진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다.

인권, 다시 일어나더니 이 와중에도 꿈쩍도 안하고 있는 대규를 원망스레 보곤 화장실로 향한다.

## #76. 동 화장실 (밤)

세면대 위로 올라가 다리를 씻는 인권.

불긋불긋 많이도 물렸다.

찬물로 씻어도 너무 간지럽자 따다다닥 마구 두들긴다.

이젠 너무 아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까지 나고...

인권 바닥으로 내려와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신다.

세수까지 하고 티셔츠로 대충 얼굴을 닦으며 나간다.

## #77. 대합실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 문득 서는 인권.

아까 인권이 있던 자리에 대학생들이 둘러서 있고 기타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린다.

설마... 믿어지지 않는다.

조심스레 다가가는 인권.

사람들 사이로 살짝 살짝 보이는 대규의 모습.  
기타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 대규

깊은 바다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더 자유롭게/  
거미로 그물쳐서 물고기 잡으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인권.  
대학생에게 빌린 통기타를 매고 서서 멋지게 노래부르는 대규.

### 대규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몸을 흔들고 박수도 치며 대규의 노래에 빠져 있는 학생들.  
씨익 웃는 인권.  
보면 대규의 모자가 뒤집어진채 앞에 놓여 있다.

### 대규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와! 하며 박수소리가 울려퍼지고 쑥쓰러운 듯 인사하는 대규.  
앵콜소리와 박수소리는 요란한데 모자는 텅 비었다.  
인권, 얼른 모자를 집어들곤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확히 코앞에 모자를 들이밀며 미소를 날리는 인권.  
돈을 넣을때까지!  
인권의 성화에라도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  
인권, 그렇게 한바퀴를 죽 돌곤 중앙으로 와 동전이 담긴 모자를 들곤 멋지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이 모든걸 쪽팔려하며 지켜보고 있는 대규.

O.L.



또다른 노래를 부르는 대구.  
인권, 추임새도 넣어가며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모자에 모여진 동전들 위로 던져지는 천원짜리 지폐.

### #78. 가게 (밤)

스물둘, 스물셋...천원짜리를 세고 있는 인권.  
인권 앞, 진열대 위에는 동전이 들어 있는 모자가 올려져 있다.  
계산대에 라면 두개를 올려놓는 대구, 모자 속 동전을 한웅큼 집어 세는데  
불쑥 들어오는 파한뿌리와 계란 두개...인권이다.  
인권, 손에 쥐고 있던 천원짜리 몽치에서 두장을 뽑아 호기롭게 계산대에 놓는다.  
허! 하는 대구.

### #79. 민박집 방안(밤)

문 열고 들어오며

대구

씨이, 주인아줌마가 자는데 깨운다구  
욕만...(보면)

방안에 일렬로 놓인 라면과 파, 계란...그리고  
코펠, 버너, 수저, 야외용 도마와 칼, 김치까지...  
놀라 입벌리고 있는 대구.

대구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인권

옆방 누나가.

대구

(주저 앉으며) 와, 난 안먹히구 넌 된다?

인권

얼른 와서 불이나 켜. 돈 만드느라구  
수고했으니까 내가 풀여줄게.

대구

(울상이다)

O.L.

버너의 파란 불꽃... 그 위에 얹어 있는 코펠.  
수저로 코펠을 두들기며 노래부르는 인권.  
자작곡의 단순한 핑크락이다.

### 인권

물이 끓지도 않는데 집어넣는 사람 있지/  
물론 먹을 순 있지/ 면이 불지/

옆에서 30만분의 1지도를 식탁처럼 펼치고 그릇과 수저 등을 세팅하는 대규.  
인권, 코펠 뚜껑을 열고 끓는 물에 라면과 스프를 집어넣으며

### 인권

물이 팔팔 끓으면 먼저 라면을 넣지/  
스프부터 넣는 사람도 있지/ 이상하지/

세팅을 모두 끝내고 앉는 대규, 인권을 바라보며 제법이네 한다.  
인권, 도마에 파를 올려 놓고 계란 두알도 바로 옆에 갖다 놓는다.

### 인권

라면이 끓는 사이 파와 계란 준비하지/  
당근 안 넣어도 상관 없지/ 맛이 없지/

고개를 까딱거리며 장단을 맞추는 대규.

O.L.

거의 끓은 라면에 도마에 썰어논 파를 집어 넣으며

### 인권

파송송 썰어넣고/ 파송송 파송송/

두손에 잡은 계란을 냄비에 탁쳐서 깨 넣는 대규.

### 인권

계란탁 깨서넣고/ 계란탁 계란탁/

대규가 계란탁 계란탁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했다.

인권

(신이 나) 나는 파송송/ 아빠는 계란탁/  
파송송(하고 대규 바라보면)

대규

계란탁

인권

파송송

대규

계란탁

그렇게 파송송과 계란탁을 번갈아 주고받는 두사람.

점점 빨라지는 비트, 주변에 있는 것들로 장단을 맞추며, 머리를 흔들며, 난장을 트는 부자.

## #80. 룸살롱 룸(밤)

문이 열리고 환한 미소로 들어오는 미연. 그 뒤로 주리.

미연

오셨어요?

앉아 있는 40대 두 남자...그 중 한 명은 명품점에서 옷을 골라주던 남자다.

미연, 그 남자의 옆에 앉는데 휘청하며 테이블을 짚다가 술잔을 건드린다.

굴러 떨어지는 술잔, 남자의 바지에 술이 쏟아지고...

미연, 어머 하며 냅킨을 가져가다가 이번엔 술병을 넘어뜨리지만 아랑곳 않고 바지를 닦는다.

인상을 찡그리는 남자. 미연의 손을 치우곤 자신이 바지를 닦는다.

주리

죄송해요. 언니가 술을 좀 많이 했나

봐요.

남자가 바지를 닦고 주리가 사과를 하는 사이 미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남자의 핸드폰을 본다. '8월 19일. 11시 20분'

뚫어져라 시계를 보던 미연, 벌떡 일어나더니

미연

(우아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제가 갈데가

있어서 이만...(인사하곤 휘적휘적  
나간다)

기막힌 일동.

### #81. 차안/주차장(밤)

막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미연. 술에 취해 시동도 잘 걸지 못한다.  
드디어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는 미연.  
뛰어오는 주리, 운전석 문을 여는데  
뒤로 움직이는 차, 뒷차를 쿵 들이받는다.  
그 바람에 휘청하며 바닥에 엉덩방아 찼은 주리.  
미연. 다시 기어를 바꾸고 가려하자  
주리, 얼른 일어나 미연을 말리며

주리

언니 미쳤어?

미연

(주리를 확 뿌리치곤)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주리

(발을 동동 구르며) 왜 이래! 정말, 오늘

하루종일!

미연

(웃으며) 지금부터 달리면 오늘안에

도착할 수 있어.

뽕 달리는 차, 이번엔 앞 차를 박는다.

주리, 속상해 미치겠다.

### #82. 민박집 방안(밤)

나란히 눈감고 누운 두사람.

밖에서 귀뚜라미소리가 들린다.

대규

(눈 감은 채) 뭐 하나만 물어보자.

인권

(눈 감은 채) 뭐?

대규

나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인권

...엄마가 여기저기 막 전화하구 그랬어.  
아빠 찾느라구...그때 들구 외웠어.  
엄마는 몰라. 그때 주인집 똥보가 막  
방빼라 그랬어. 엄마가 봐달라구 했는데두  
똥보는 안 봐주구...엄마랑 아빠 집  
근처까지 갔었어.

대규

(눈 뜨며) 나한테 왔었다구?

인권

엄마가 잠깐 있으라 그러구선  
갔다오더니... 그담이 고아원이었어. 1년  
있다 여덟살 생일되면 꼭 온다구...근데  
안 왔어.

대규

...(다시 눈을 감는다)

인권

엄마... 못찾았어?

대규

...보구 싶니?

인권

(돌아눕는다)... 아홉 살 내 생일 지금 막  
지났어.

대규, 인권의 등을 바라본다.

작은 등...어깨가 조금 흔들리는 것도 같다.

O.L.

희뿌연한 새벽, 새소리가 들린다.

잠이 깨는 대규, 보면 인권의 자리가 비어 있다.

끄응 일어나 보면 불켜진 화장실.

일어나 창문을 여는 대규. 심호흡을 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화장실 쪽으로 가선 문을 기대고 앉아선

대규

뭐하니? 똥 누니?

인권(OFF)

(희미하게)응.

대규

....야! (낄낄거리며) 너 돈 계속 만들구  
싶지 않냐? 응? 기왕이면 우리 좀 많이  
만들자. 까짓거 얼른 치료 받구 싹 다  
나아서 돈을 막 갈구리로 굶는거야.  
그래서 일단 푸조를 한대 사고...

INTERCUT, 화장실 안.

바닥에 누워 벌벌 떨고 있는 인권, 고열에 들뜬 얼굴...주변엔 구토물이 있다.

대규

...푸조...포르쉐루 살까? 아냐, 푸조루  
가....야, 미치겠네. 푸조냐, 포르쉐냐.  
좋아, 니가 결정해. 지금부터 서울가서 둘  
중의 하나 니 맘대루 결정해. 그러구선  
병원가는 거야. 좋지?

혼절하는 인권.

깊은 FO.FI.

### #83. 서울 소아암병동 무균실(낮)

낄낄거리며 만화책을 읽고 있는 대규.

그 뒤로 멸균식을 맛없이 먹는 인권, 하얗게 갈라진 입술, 핏기 없는 수척한 얼굴  
이다. 작은 손목과 손등 여지저지에 링겔을 꽂은 바늘자국이 있다.

인권

(겨우 씹어 넘기곤 혼잣말처럼) 씨발...

대규

(말을 막으며) 야, 이거 니가 보기엔 너무  
야하다.

인권

(옥! 구토가 난다)

## 대규

(차마 인권을 보지 못하고 항의하는  
척하는) 아이, 어떻게 병원에서 상한  
음식을 써요?

### #84. 몽딱쥬

강남의 유흥가, 밤,  
화려한 간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대규와 박사, 긴팔을 입고 있다.  
어느 지하클럽으로 들어가는 두사람.

방사선 치료실 앞, 낮,  
유리창 너머 방사선 치료기로 들어가는 다른 환자의 모습이 보인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인권, 워크맨으로 노래를 들으며 노트에 연필로 무언가 그  
림을 그리고 있다. 잘 안되는지 지그재그로 선을 그어 지워버린다.

어느 룬쌀롱, 밤,  
웨이터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뭔가를 묻는 박사.  
그 뒤로 대규가 지나가는 여자들을 유심히 본다.

소아병동 무균실, 밤,  
조용한 실내에 사각사각 연필 지나가는 소리.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인권이 워크맨 들으며 또다시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맘에 안드는지 종이를 넘기고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  
몰두해 있는 인권의 모습.  
언제 왔는지 간호사가 워크맨을 빼고 불을 끈다.

어느 클럽 앞,  
들어가려는 대규와 박사를 막는 기도들.  
사진 내미는 박사의 손을 치고 땅에 구르는 사진, 누군가의 발에 밟힌다.  
열받은 대규, 기도들을 향해 몸을 날리지만 땅으로 꼬꾸라질뿐이다.  
다시 공격하려는 대규를 잡아 끌고 나오는 박사.

소아병동 무균실, 낮,  
인권이 또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만화체 그림으로 사람 얼굴을 그리다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연필을 놓치는 인권.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있다.  
인권, 한손으로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쥐는데 한웅큼의 머리가 빠진다.

### #85. 강남 유흥가(밤)

어느 나이트 건물에서 나오는 대규와 박사.

**박사**

(위를 올려다보며) 여긴 완전  
청정지역이네. 잘 기억해둬야지.

**대규**

야, 정보가 틀린 거 아냐?

**박사**

확실해. 1년전쯤에 이쪽으로 진입했다. 날  
못믿는 거야?...관둬, 관둬. (횡하니  
걸어간다)

**대규**

야!(쫓아가는)

**박사**

(투덜대는) 내가 지금 일도  
못하구...에이씨...형이 나 책임질거야?

**대규**

....책임질게! 결혼해주면 될 거 아냐!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주세요.

**박사**

(말을 말아야지...)

### #86. 일반 병실(낮)

거울 속의 인권, 얼굴이 전보다 좋아졌다.

**대규**

(들어와 둘러보며) 여기가 그러니까  
유균실이구나. 유균실...여기도 균,  
저기도 균...야, 오늘따라 균이 너무  
사랑스럽네. (희야! 가사바꿔 노래부르는)  
균아! 날 좀 바라봐!

거울 보며 조심조심 머리 빗질하는 인권, 일부분 빠진 머리칼을 커버하기 위해 애  
쓴다.



인권

아빠, 어때? 이상해?

대규

니가 보기엔 어떤데?

인권

이상해.

대규

니 눈이 정확할거야.

인권

(진지하게 부르는) 아빠!

대규

(인권이 항의해서 부르는 줄 알고 웃으며)  
걱정마. 특이한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애두  
많아.

인권

다리에 힘이 점점 없어져. 여기 얼른  
나가자. 국토종단 끝내야지. 응?

대규

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치료 잘  
받으면 전처럼 막 걸을 수 있다구...

인권

돌팔이 의사새끼가 뭘 알어?

대규

(버럭) 야! 이제 그만 할 때두 됐잖아!

잠시 어색한 침묵...

대규

(분위기 바꾸려고 다시 노래부르는) 굿아!  
재좀 때려줘! 재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려.

실망하는 인권.

## #87. 룬살롱(밤)

사진(미연부분만 확대한 것)을 내밀고 있는 대규.  
주리, 어? 하면서 유심히 본다.

**대규**

(기대감에) 이걸 9년전  
사진이니까...여기다 화장두 하구  
헤어스타일두...

**주리**

(사진 건네며) 모르겠는데요.(다른데로  
가버린다)

실망하는 대규, 돌아서 가며 핸드폰을 받는다. 박사다.

**대규**

어...아니...그쪽은?

문틈으로 그런 대규를 바라보고 있는 미연.  
그 뒤로 룸안엔 흥청망청 난장판의 술자리.

## #88. 강남 유흥가(밤)

편의점에서 나오며 담배 끄는 박사.

**박사**

어디 간거야? (대충 걸터 앉으며 담배  
피워물다 어? 한다)

길 건너 레코드점, 유리창 안으로 대규가 테잎을 하나 골라 계산하는 게 보인다.  
나오는 대규, 길 건너 박사에게로 오면

**박사**

(일어나며) 정품을 샀어? 형이?

**대규**

(진지하게 화난 얼굴로 말없이 성큼성큼  
걸어가면)

**박사**

(얼른 뒤 쫓아가며) 왜그래? 무슨 일 있어?

**대규**

드럽게 비싸잖아. 얼마 주고 샀는 줄  
알아? 열배야, 열배.

## #89. 복도/병실/계단(밤)

30대 후반의 통통한 간호사(간호사1) .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 '강수진'이라고 쓰여 있다.

**대규**

강물이 우릴 갈라놓는다해도  
수, 수민씨만 내맘 알아준다면  
진, 진정 난 행복합니다.(짠- 장미꽃  
한송이를 내민다)

웃는 간호사.

대규, 웅크 한번 하곤 병실로 향한다.

기분 좋게 문 열면 비어 있는 침대.

화장실을 살펴보지만 역시 없다.

병실에서 뛰어나오는 대규. 간호사는 안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대규**

인권이 못봤어요?

**간호사1**

병실에 없어요? 잠전에 잠이 안온다구 요  
앞을 왔다갔다하더니 들어가 잔다구  
그랬는데...

대규, 엘리베이터를 한번 바라보곤 계단을 내려간다.

미친 듯 뛰어내려가는 대규. 그렇게 서너층을 뛰어내려가다가 문득 선다.

저 아래 영급영급 계단을 기어내려가고 있는 인권, 옷도 갈아입고 배낭도 땀.

**대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런다구 니  
소원이 이뤄지냐! 이 바보야! 니 병이  
국토종단해서 낫는다면 내가 벌써 백번두  
더 했어!

**인권**

내 소원 그거 아냐! 아니라구!

**대규**

?

## #90. 병실 (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멍하니 TV 보고 있는 대규.  
TV에선 조PD가 촬영했던 국토종단을 하는 청소년팀이 나온다.  
다음주 다큐프로에 나올 예고편이다.  
멍하니 보고 있던 대규, 손에 쥐고 있던 리모콘을 눌러 끄곤 돌아눕는데 뭔가가 배긴다. 아까 사서 넣어놨던 정품 테잎이다.  
일어나는 대규, 보면 자고 있는 인권, 귀엔 구형 워크맨의 이어폰이 꽂혀 있다.  
인권의 머리맡에 테잎을 놓곤 살짝 이어폰을 빼는데 작게 노래소리가 들린다.  
흠칫하는 대규, 천천히 자신의 귀에 이어폰을 꽂는다.  
흐르는 락음악, 언젠가 대규의 방에서 여자가 틀었을 때 들렸던 연주가 들린다.  
곧이어 들리는 보컬의 노래....목소리의 주인공은 대규다.  
얼른 이어폰을 빼는 대규, 멍하니 인권을 본다.  
끄응 옆으로 몸을 돌리는 인권. 그러면서 배개 밑으로 비죽 나온 노트가 보인다.

O.L.

노트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대규, 이어폰을 끼고 있다.  
대규의 노래가 이어지고...  
첫장을 넘기면 얼굴을 그리려다 직직 그어놓은 것이다.  
계속 망친 그림들을 넘기면 수없이 그린 누군가의 얼굴...점점 형체가 완성되는 만화체의 얼굴, 엄마다.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기면 그 완성된 엄마얼굴 옆으로 인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자.  
노래는 클라이막스로 향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내며 간절히 소망 하면 소망은 이루어진다는...인권이 국토종단을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할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그것과 같은 가사의....  
테잎은 낡아 군데군데 직직 늘어난다.  
이제 아이의 소망을 짐작할 수 있겠다.  
대규,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고개를 뒤로 젖힌다.  
가슴이 멍멍하다.

## #91. 진찰실(낮)

뷰박스에 걸린 치료결과 사진들.

### 의사2

치료강도를 높이는 수 밖에 없어요. 아마  
아이가 견디기 힘들 겁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구...

**대규**

(고개 떨군채) 치료를 관두면요?

**의사2**

...굉장한 속도로 진행되겠죠. 결국...

**대규**

(아프게 웃으며) 좋아요, 더 세게 해요.  
어차피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어쨌든  
다 낫기만 하면...

## #92. 복도(낮)

사람들로 분주한 복도....그 속 멍하니 앉아 있는 대규. 그 위로

**의사2(V.0.)**

완치는...이미 늦었어요. 단지 속도를  
늦추는 것 뿐입니다. 병원에서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O.L.

이제 아무도 없다. 그 자리에 그대로 혼자 앉아 있는 대규.

O.L.

또다른 복도,  
대규, 성큼성큼 걸어간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얼굴로

**대규(V.0.)**

길게 되도록이면 길게 연장하면 되잖아요!  
똥칠을 하던 사지를 못쓰던 상관없다구요!

## #93. 병실(일몰)

창가쪽으로 우당탕탕 도망치는 인권,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하다 주저 앉는다.  
다가오는 간호사1,2.  
간호사2(20대)의 손엔 헤어컷터기가 들려 있다.

**간호사2**

누나 이래봐두 잘까아.

**인권**

씨발, 그럼 집에 가서 아줌마 애나  
깍아줘.

**간호사2**

(달래는) 치료,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이번 치료 받으려면  
머리 깍아야 돼.

**인권**

누가 또 치료 받는데? 난 나갈거야!

**간호사1**

(인권의 뒤로 가 짹 잡고선 의자에  
앉는다. 간호사2에게) 내가 잡구 있을  
테니까 얼른 시작해.

발버둥치며 소리지르는 인권.

**인권**

이거 놔! 내 머리에 손 대기만 해. 다  
죽여버릴거야! 이거 안 놔! (간호사1의  
손을 짹 물어버린다)

악! 소리지르는 간호사, 그래도 다시 붙잡으려하고 인권은 다시 도망치고...  
문득 서는 인권.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 있는 대규.

**대규**

(내뱉듯) 시팔!

돌아보는 간호사들.  
인권, 씩씩거리며 대규를 노려본다.

**대규**

(시선 외면하며) 그거 놔두구 가세요.  
내가 박박 밀어버릴테니까...

## #94. 병원 마당(일몰)

휠체어에 탄 환자복 차림의 인권, 시무룩하고 있다.  
천천히 산책하듯 휠체어를 밀며 걷는 대규.  
휠체어 손잡이엔 검정 비닐봉지가 걸려 있다.  
여기저기 산책나온 환자들과 가족들...그들 사이로 지나가는 대규, 천천히 마당을 가로지른다.  
대문쪽으로 향하는 휠체어, 조금 속도를 빨리한다.  
어? 하는 인권.  
휠체어를 짝 권 대규의 주먹.  
대문이 점점 다가온다.  
오가는 차량들이 놀라 서고...  
(SLOW) 굳은 얼굴의 대규, 한순간 이를 앙다물며 그대로 대문을 빠져나간다.

## #95. 방송국 로비(낮)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조PD, 두리번거린다.  
불쑥 앞으로 나타나는 대규, 각목을 들고 있다.  
놀라 멈칫하는 조PD.  
대규, 각목을 조PD에게 쥐어준다.  
얼떨결에 각목을 받아드는 조PD.  
앞드리는 대규, 조PD를 향해 씨익 웃는다.  
기가 막힌 조PD.

## #96. 극도(낮)

카메라 모니터에 잡히는 장면.  
휠체어에 탄 인권(평상복 차림)과 밀고 오는 대규, 두사람이 신나게 동요 락버전을 부른다. 언젠가 인권이 불렀던 것처럼...

### 대규,인권

학교종이 땡땡땡/어서모이자/선생님이  
우리를/기다리신다/ 아빠하고 나하고/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문 열린 카니발 뒤편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하고 있는 조PD.  
카니발이 대규와 인권의 5미터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다.

O.L.

쿵 카니발의 뒷문을 닫는 조PD.  
옆에 서 있는 대규.

**대규**

5분 정도만 나오게 해줘.

**조PD**

5분이 작은 줄 알아? 편집 다 끝났는데.

**대규**

고마워, 형.

**조PD**

너 같은 동생 안키워....(인권에게로 가선  
웃으며) 너 아빠랑 듀엣 하지마. 니가  
손해야.

웃는 인권. 빠진척하는 대규.

**조PD**

(인권의 눈높이로 키를 낮추곤) 무서워할  
거 없어. 그거 되게 간단한 수술이래.

대규, 고개를 돌린다. 조PD에게 거짓말을 했나보다.

**조PD**

아저씨가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100%성공한대. 알았지? (어깨 툭툭 치곤  
차 있는 곳으로 간다. 차에 오르기 전  
손을 흔들며) 수술 끝나면 보자!  
....(차에 오른다)

떠나는 카니발.

손을 흔드는 대규와 인권.

O.L.

밤, 가로등도 꺼져 칠흑같은 어둠 속, 랜턴 불빛만이 길을 비춘다.  
휠체어 손잡이에 묶여 있는 랜턴.  
인권은 담요를 덮고 끈히 자고 있다.



오가는 차량하나 없는 깊은 밤의 좁은 국도를 대구 혼자 휠체어를 밀며 걸어간다.  
선뜻한 밤바람으로 졸음을 쫓으며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대구.

다른 날 낮.

서울이 115킬로 남았다는 표지판, 그 아래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 뒤돌아 나란히 서서 오증을 누는 부자.

**인권**

아빠! 오증이 마려운 게 아닐 때도 고추가  
뺏뺏해지는 건 왜그래?

**대구**

(웃음을 참으며) 오증 마려운 게 아닌데도  
고추가 뺏뺏해져?

**인권**

(진지하게) 응. 하루에 한 스무번 정도.

**대구**

스무번씩이나!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웃음...터져나온다)

## #97. 룬살롱 탈의실(밤)

누군가 웃기는 얘기를 했는지 세명의 여종업원이 웃느라고 난리가 났다.  
배꼽을 잡고, 뒤로 넘어가고, 발을 구르고...시끌법석한데

**주리(OFF)**

조용히 좀 해봐!

일동, 왜 지랄이야? 하면서 보면

TV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주리.

TV화면엔 휠체어에 탄 인권과 대구가 카메라 쪽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나레이터 : 우리는 도중에 또다른 국토종단팀을 만났다.

**여종업원1**

뭔데? 아는 사람이야?

**여종업원2**

(낄낄) 니 애인이야?

**주리**

(바라) 입 안 다물어!

TV화면, 신나게 락버전 동요를 부르며 걸어가는 대규와 휠체어에 탄 인권.  
나레이터 : 아이는 국토종단을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거라고, 그래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 #98. 미연의 원룸(밤)

대규부자가 노래부르는 장면과 나레이션 그대로 연결되었다가  
카메라 빠지면 모니터 화면이다.  
컴퓨터 다시보기를 하고 있는 미연의 굳은 얼굴.

주리

(혼잣말처럼) 그날 짹짹하더라. 애가 좀  
있다 수술한대. 언니가 시킨 거니까 난  
죄없어.

모니터의 인권에게 손을 뺐었다가 차마 대지 못하는 미연.  
사랑스럽게 인권을 쳐다보며 웃는 보조개 띤 볼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 #99. 국도(낮)

대규

웃을때 보조개가 지는 데...너무 이쁜  
거야. 뺨갔지.

대규의 얼굴은 꺼칠하고 야위고 수염이 많이 자라 다른 사람 같다.

인권

...그게 끝이야?

대규

응.

인권

보조개 하나 뺨에 엄마를 좋아했다구?  
다른 건 없어?

대규

응.

인권

(한심한)

지나가는 어느 차, 두사람을 보곤 어? 한다.  
차를 서행하며 자기네끼리 얘기를 주고 받더니  
창문을 열고 파이팅! 힘내세요! 한다.  
대규, 화답하는 의미로 마치 자동차와 경주하듯 힘차게 휠체어를 밀며 뛰어간다.  
약간의 내리막길...속도가 붙고 인권, 두 팔을 벌리며 소리를 지른다.  
자동차 속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고...  
자동차와 휠체어가 그렇게 나란히 내려간다.

O.L.

밤,  
논두렁에 거꾸로 처박힌 휠체어.  
사지를 비틀며 고통스러워하는 인권.  
대규, 그런 인권을 안고 어쩔줄 몰라한다.

O.L.

밤, 원두막,  
이제 평안한 얼굴로 잠이 든 인권.  
원두막에 기댄채 서 있는 대규, 핸드폰을 꺼낸다.  
뺏테리 작대기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통화버튼을 누르고 신호가 한참을 가도 받지 않는다. 끊을까 하는데

**아버지(F)**

여보세요.

**대규**

....저예요.

**아버지(F)**

...

**대규**

전화를 왜 그렇게 안받아요?

**아버지(F)**

라면 끓이구 있었거든....

**대규**

그게 저녁이에요?

**아버지(F)**

...

**대규**

(주저 앉으며) 라면에... (잠자는 인권의

얼굴을 본다. 눈물을 참으며) 파두 송송  
떨어놓구 계란두 풀어서 드세요...  
(소리죽여 오열하는) 그럼 맛있대요,  
아버지...

### #100. 방송국 고양제작국(낮)

통화하고 있는 조PD.

조PD

아, 인권이 담당이사세요?...네?(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심각하게 굳는다)

### #101. 미연의 원룸(낮)

뚜뚜뚜 통화중이라는 신호음만 들린다.  
초조한 얼굴로 핸드폰 접는 미연.

### #102. 몽따쥬(낮)

방송국, 핸드폰에서 이대규를 찾아 급히 전화를 거는 조PD.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만 나온다.

방송국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미연.  
뒤로 급히 나가는 조PD.

운전중인 조PD, 지도를 보며 대규부자가 어디쯤 오고 있을지를 가늠한다.

거리, 초조한 얼굴로 운전중인 미연.

서울 외곽 초소, 군인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조PD.

### #103. 서울 외곽 거리(낮)

한적한 도로의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 부자. 강행군에 지칠대로 지친 대규와 병세가 악화돼 헬  
축한 인권, 동시에 오이를 빼곤 서로 마주보고 웃는다.  
인권, 맛있게 먹는가 싶더니 이내 토하고 만다.  
길 건너편에 멈추는 차...조PD다.

O.L.

버스 안의 승객들이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다.  
웅성웅성 수군거리며 걸어가는 사람들...그 앞으로 대규부자가 가고 있고 그 모습  
을 방송차가 촬영하고 있다.  
20대 청년이 대규에게 힘을 주려는 듯 그 옆에서 함께 걷는다.  
부담스러워하는 대규.

O.L.

거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행한 눈, 이를 악물고 걸어가는 대규와 힘없이 휠체어에 늘어진 인권.  
부자가 지나가는 동안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박수로 격려하기도 하  
고...어떤 사람은 물을 건네고 어떤 사람은 수건을 건네고...

### 대규

(미치겠다. 혼잣말로) 완전 이봉주네.

대규, 이봉주처럼 건네주는 물을 받아 한모금 마시곤 머리에도 물을 뿌린다.  
대규 뒤론 몇몇사람들이 걱정하듯 함께 걷고 있다.  
대규와 인권이 지나가고 나자 거리의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쯔쯔쯔...어떻게 엄마가 에를 버리누...' '그래도 엄마라고...' '저리다 일어나면 어  
떨려구 아픈애를...'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여자 상판 한번 보고싶네'  
그런 사람들 뒤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여자, 미연이다.

### #104. 촬영차안(저녁)

조PD, 마주 선 대규에게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 대규

미안해, 형.

### 조PD

(대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냐, 내가  
생각이 짧았어.

## #105. 거리(저녁)

카메라 모니터에 보이는 모습.

### 30대 주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엄마되시는 분이 꼭  
나타나서 아이의 소원도 이루어지구 아이  
수술도 잘 됐음 좋겠어요.

한 스태프가 조명을 환하게 비추고 있고 카메라가 주부를 촬영하고 있다.  
인터뷰하고 있는 조PD, 이번엔 아까 대규의 뒤를 따르던 20대 청년에게 마이크를  
내민다.

### 20대 청년

한 2시간 같이 걸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 아빠되시는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녁먹구 다시 힘을  
내야죠. 끝까지 같이 걸을 겁니다.

조PD, 어색하게 웃는다.

## #106. 다른 거리(밤)

어느 건물 뒤편에서 나오는 대규, 주변을 살핀다.  
대규,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빠르게 걸어간다.  
행여 사람들 눈에 띄까 초조한 얼굴로 미친 듯이 도망치는 대규.  
인권은 자고 있다.

O.L.

부러 사람 많고 환한 길을 피해 어둡고 인적없는 길로 돌아가는 대규.  
사람들 눈에 띄까 싶으면 잠깐 몸을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피한 큰길에선 미연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대규와 인권을 찾고 있다.

O.L.

밤, 저 멀리 아파트의 불빛들...  
그 불빛들을 뒤로 하고 지쳐 걸어오는 대규.

이제 서울을 완전히 벗어났다.  
8차선 도로에 오가는 차량들도 뜸하고 도로 양 옆은 벌판이다.  
이 길로 죽 가면 파주, 문산이라는 도로표지판이 보인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린 대규. 가로수 아래 휠체어를 세운다.  
휠체어가 덜컹 서면서 잠이 깨는 인권.  
인권이 깬 줄도 모르고 그대로 바닥에 뺨는 대규.

#### 인권

(신경질 짝 내는) 씨발, 꿈 깬잖아...엄마  
꿈 깬는데...

#### 대규

(서운한) 미안하다. 엄마꿈 방해해서...

대규, 끄응 일어나 거칠게 휠체어를 잡고선 다시 걷는다.  
인권은 다시 엄마꿈을 꺾보려는 듯 잠을 청하고 있다.  
대규, 너무 지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 대규

(흐느적거리는 다리를 겨우 옮기며 심통이  
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 니 소원  
이뤄진대는데 나 같은 거 쓰러지는 게 뭐  
대수냐!

휠체어 미는 대규의 손을 잡는 인권.  
어? 하며 멈추는 대규.

#### 인권

(눈감은 채) 엄마꿈은 처음이야....그  
전엔...내내 아빠꿈만 꿔.

#### 대규

!!!

### #107. 임진각 앞 도로(낮)

파주를 지나는 대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걷고 있다.  
임진각이 얼마 안남았다는 표지판.  
휠체어 앉은 인권, 창백한 입술, 겨우 겨우 실눈을 뜨고 있다.

마치 추운 듯 파르르 떨리는 대규의 얼굴.

- *FLASH BACK,*

(전선 그대로 연결되어) 밤길가다 멈춘 휠체어의 인권.

### 인권

엄마가 막 소리지를때...  
엄마가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구 울때...  
고아원에서 형들한테 직쌀나게 맞을때...  
왜 내 이름은 서인권인가 생각할때...  
그때마다 그날 밤엔 아빠꿈 꿰어.

현재,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겠는 대규, 미친 듯 걷고 있다.  
그나마 뜨고 있던 실눈마저 감아버린 인권.

### 대규

서인권! 정신 차려! 우리 같이 떼돈  
만들기로 했잖아!

- *FLASH BACK,*

아무말도 못한채 굳어 있는 대규.

### 인권

아빠 쓰러지면 내 소원 안 이뤄져.  
(대규에게 노트 건네며) 이게 내  
소원이야.

그리곤 휠체어를 밀어 건물쪽으로 간다.

건물 모퉁이를 잡고 간신히 서선 바지를 내리는 인권.

대규, 노트를 펼친다.

지난번에 본 것들이다.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엄마와 인권이 나란히 웃고 있다. 그리고 그 위 두사람  
가운데 대규가 양팔로 두사람을 안고서 환하게 웃고 있다.

그 세사람의 얼굴이 두겹의 사각 프레임 속에 들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엔  
2003. 9. 25 라고 날짜가 적혀 있다.

진짜 사진처럼...

고개를 드는 대규, 물기 어린 눈으로 인권을 찾는다.



오줌을 누며 불꺼진 쇼윈도우에 얼굴을 비춰보는 인권.

### 인권

더 이상해졌잖아. (침을 발라 머리칼을  
정돈하며) 잘 나와야 되는데...우리 처음  
찍는 거잖아. 학교에 널거거든...가족사진  
가지고 나가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1학년때두 나만 못했어. 병식이 새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이랑  
다 같이 사진을 찍었드라. 근데 그새끼 그  
사진을 들구두 말을 못해. (오줌을 다  
누고 바지를 추스르며) 난 잘할 수  
있는데...(다리힘이 없어 풀썩 쓰러진다)

놀라 뛰어가는 대규.

### 인권

(누운채 대규를 바라보며) 나 즐라 발표  
잘해.

현재,

대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흐른다.

붉은 석양을 뒤로 하고 휠체어를 밀며 걸어오는 대규.

인권은 거의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대규, 노래를 시작한다. 자신의 노래를...

#### - FLASH BACK,

사진에 나왔던 고등학교 어느 축제, 대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옆으  
로 미연도 보이고...두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젊음과 희망, 소망을 노래한다.

현재,

대규, 진심으로 노래가사를 소망하며 노래부른다.

죽은 듯 축쳐져 있는 인권.

#### - FLASH BACK,

고등학교 시절의 대규가 열창을 한다.

현재,

대규가 온몸으로, 영혼을 다바쳐 노래를 한다. 분명히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그건 차라리 기도다.  
그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인권이 희미하게 눈을 뜬다.  
인권의 시선으로 보이는 임진각 앞 광장....그러나 아무도 없다.

노래는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절규하는 대규.

흐릿한 인권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한 사람...

광장 저 끝에서 뛰어오는 미연이 보인다.

인권이 희미하게 웃는다.

환희에 찬 대규의 얼굴.

미연이 점점 가까와진다.

미연이 보조개가 보이도록 환하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미연의 모습이 흐릿해진다.

인권의 눈이 자꾸만 감기려고 한다.

미연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WHITE OUT)

## #108. 에필로그

아름다운 판타지...

공원,  
대규, 인권, 미연이 손을 잡고 나란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잔디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세사람.  
대규와 인권이 동시에 오이를 빼내고 김밥을 먹는다.  
미연이 그런 두사람에게 막 야단을 친다.

어느 무대, 대규와 미연이 기타를 치고 인권이 노래를 부른다.  
서로를 쳐다보며 머리를 흔들며...  
박사와 주리, 조PD가 몸을 흔들며 관객석에서 보고 있고 그들 뒤로 대규부가 시끄�

러 죽겠다는 표정이다.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

미연과 인권이 경치 좋은 풍광을 뒤로 하고 서 있다.

대규, 카메라를 설치하고 얼른 뛰어오고 환하게 웃는 세사람의 모습에서 찰칵 사진이 찍히며 스톱모션.

사진이 그대로 인권의 그림으로 변한다.

카메라 뒤로 빠지면 가족사진 그림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

대규의 앨범 CD.

CD는 임진각의 한 공원 어린 묘목 앞에 놓여 있다.

카메라 뒤로 더 빠지면 묘목 앞에 서 있는 대규와 미연.

카메라 부감으로 빠지면서

앨범 타이틀인 대규의 < 파송송 계란탁 > 이 흐른다.

< 끝 >